

2017년도 교원연수

동아시아 속의 한국사

중등

| 일시 2017.7.24(월)~7.28(금) 09:30~16:20

| 장소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11F)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017년 동아시아 속의 한국사(중등) 교원연수 일정표

▶ 연수일시 : 2017년 7월 24일~28일

날짜	교시		강의주제	강사
7월 24일 (제1일)	9:20~9:30		등록 및 개강식	김현철 (교육연수원장)
	9:30~12:30	1교시	동아시아 세계와 한국사	이근명 (한국외국어대학교)
	12:30~13:30		점심시간	
	13:30~15:00	2교시	동아시아 평화와 역사문제	이현주 사무총장 (동북아역사재단)
	15:00~16:20	3교시	고조선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고조선사 연구 최근 동향-	박선미 (동북아역사재단)
7월 25일 (제2일)	9:30~11:00	1교시	高句麗의 對倭外交와 동아시아의 정세	이성제 (동북아역사재단)
	11:00~12:30	2교시	전근대 중국의 사서편찬과 외국인식	김정희 (동북아역사재단)
	12:30~13:30		점심시간	
	13:30~16:20	3교시	몽골제국과 팍스몽골리카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7월 26일 (제3일)	9:30~11:00	1교시	10~12세기 동아시아 세계 '澶淵'之盟'과 11세기초 東北亞	이장욱 (동북아역사재단)
	11:00~12:30	2교시	고지도로 본 동해 독도	김종근 (동북아역사재단)
	12:30~13:30		점심시간	
	13:30~16:20	3교시	동아시아 시각의 베트남사	노영순 (한국해양대학교)
7월 27일 (제4일)	9:30~11:00	1교시	일본교과서 속의 한국사 서술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11:00~12:30	2교시	근대 동아시아 외교사	김민규 (동북아역사재단)
	12:30~13:30		점심시간	
	13:30~16:20	3교시	동아시아사 교육 연구동향	김정현 (동북아역사재단)
7월 28일 (제5일)	9:30~12:30	1교시	중국의 한국사교육, 중국교과서 속의 한국사 서술	김지훈 (성균관대학교)
	12:30~13:30		점심시간	
	13:30~16:20	2교시	수업활용 사례 발표	박성기 (경기 하남고등학교)
	16:20~16:30	수료식		김현철 (교육연수원장)

목 차

- 동아시아 세계와 한국사 3
이근명 (한국외국어대학교)
- 동아시아 평화와 역사문제 17
이현주 사무총장 (동북아역사재단)
- 고조선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고조선사 연구 최근 동향- 35
박선미 (동북아역사재단)
- 高句麗의 對倭外交와 동아시아의 정세 47
이성재 (동북아역사재단)
- 전근대 중국의 사서 편찬과 외국 인식 57
김정희 (동북아역사재단)
- 몽골제국과 팩스 몽골리카 69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 10-12세기 동아시아 세계 -澶淵之盟과 11세기초 東北亞- 83
이장욱 (동북아역사재단)
- 고지도로 본 동해, 독도 93
김종근 (동북아역사재단)
- 동아시아 시각의 베트남 근현대 역사 139
노영순 (한국해양대학교)
-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와 한국사 관련 기술 159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 근대 동아시아 외교사의 쟁점	185
김민규 (동북아역사재단)	
● 동아시아사 교육의 연구동향 분석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199
김정현 (동북아역사재단)	
● 중국의 한국사 교육 -중국교과서 속의 한국사 서술-	213
김지훈 (성균관대학교)	
● 동아시아사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	225
박성기 (경기 하남고등학교)	

※ 본 자료는 2017년 동아시아사 교원연수용으로 제작되었으며, 동북아역사재단의 공식적인 견해는 아닙니다.

The background features a repeating pattern of traditional Korean decorative motifs, including stylized flowers and geometric designs, rendered in a light gray color against a darker gray background. The central text is contained within a white rectangular area.

동아시아 세계와 한국사

동아시아 세계와 한국사

이근명 (한국외국어대학교)

〈목 차〉

1. 머리말
2. 조공 - 책봉 체제와 한국
3. 동아시아 문화권을 이해하는 주요 시각
4. 중심 질서와 소중심 질서
5. 지역 내 교류와 문화의 주체적 수용
6. 동아시아 세계와 한국사의 독창성
7. 맺음말

1. 머리말

2012년부터 우리 교육 과정에 <동아시아사>라는 새로운 교과목이 도입되었다. <동아시아사>는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를 주제별로 파악한다는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국사와 세계사의 중간에 서서 역사 인식의 범위를 지역 세계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연 새로운 시각으로 역사를 이해하고자 시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동아시아라는 지역의 통사가 아니라, 주제별 비교를 통해 동아시아 역사의 구조와 동태를 파악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동아시아사>가 도입된 데에는 물론 21세기에 들어 격화된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 분쟁이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20세기 말부터 시작된 중국의 동북공정, 그리고 일본의 역사 왜곡 및 독도에 대한 영유권 도발 등이 그것이다. 격화되는 역사 갈등에 직면하여 우리 사회 내 역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그런 만큼 <동아시아사>에는 중국 및 일본과의 역사 갈등에 대한 대응이란 취지가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동아시아를 하나의 지역 세계로 파악하여, 지역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미래 지향적 시각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 ‘임진왜란’을 ‘임진전쟁’이라 표기하였던 것, 동아시아 각국사의 단순한 나열과 종합이 아니라 주제별 비교 인식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등이 그러한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동아시아사>의 도입은 우리 사회의 발

전과 역사 인식의 성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할 수 있다.

<동아시아사>의 교육과 함께 한국의 역사를 동아시아 세계의 시각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는 관심도 제기되었다. <동아시아사>가 지향하는 역사 인식의 체계, 나아가 동아시아사의 역사 안에서 한국의 역사가 점유하는 위상을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 것일까? 동아시아에는 중국과 일본이라는 강대한 문화 세계가 존재하였다. 중국과 일본은 전근대 시기는 물론이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세계사의 전개에 강력한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이 포괄된 동아시아 역사에서 한국사는 어떠한 입지를 점유했던 것일까? 나아가 동아시아 역사에서 한국사는 어떠한 독자성 내지 지위를 지니고 있었던 것일까? 이에 대해 여러 시각과 접근 방법을 취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동아시아 문화권이란 개념, 그리고 동아시아 역사 세계 내 문화의 전파와 수용이란 문제의식을 통해 한국사의 독자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2. 조공-책봉 체제와 한국

‘동아시아’는 본래 아시아의 동부 지역을 가리키는 지리적 용어에 불과하다. 그러나 오늘날 동아시아는 단순한 지리적 명칭 또는 역사적 명칭이 아닌, 지향을 가진 지역 질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여러 민족·국가가 지난날 지속적으로 영위해 온 역사적 경험과 현대에 들어와서 두드러진 성공적인 경제발전·사회발전을 묶어서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당연한 일이지만 그 역사적 경험만 하더라도 이 지역 나라들의 관련도는 그 정도가 서로 같지는 않다. 동아시아에 위치한 여러 민족·나라들로는 중국, 한국, 몽골, 일본, 티벳 그리고 베트남 등을 들 수 있는데, 예컨대 티벳과 일본의 역사적 상호관련도를 중국과 한국의 그것과 비교해 보면 쉽게 이를 알 수 있다.

6세기로부터 8세기, 즉 삼국시대의 말기와 통일신라 시대, 중국사를 기준으로 하면 수당시대에 이른바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되었다. 우리 중등 교과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동아시아 세계’는 그것을 약간 변형한 것에 불과하다. 동아시아 문화권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듯 한자와 율령, 유교, 불교(대승불교)라는 네 가지 문화요소를 공유하는 지역을 가리킨다. 지역적으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 일본, 베트남, 그리고 그 주변 지역(티벳과 몽골)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나라들이다. 주변 지역의 경우 지역 사회의 동태에 따라 동아시아 세계에 포함되기도 하고 때로 그렇지 아니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공유되었다고 하는 네 가지 문화 요소는 두 말할 나위 없이 중국에서 연원하거나 혹은 재정립된 것들이다. 한자와 율령, 유교는 두 말할 나위 없이 중국에서 시작된 것이다. 대승불교도 처음 출현한 것은 기원 전후의 인도였지만 중국에 전래되어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였다. 오늘날 동아시아 지역에 전파되어 있는 불교의 종파는 이렇게 8세기 이전의 중국에서 출현하여 재정립된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동아시아 문화권의 형성과 긴밀한 연관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조공-책봉이라는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이다. ‘동아시아 문화권론’을 제기하는 학자들 공히 네 가지 문화 요소의 확산과 조공-책봉이라는 국제 질서가 상호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말한다. 니시지마 사다오(西嶋定生) 같은 학자는, ‘동아시아 문화권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권과 합치되며, 중국 황제와 주변 국가(민족) 수장(군주) 사이에 형성된 정치 관계(조공-책봉)를 기반으로 한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그리고 동아시아 문화권에 등장하였던 중국 중심의 정치 질서, 즉 조공-책봉 관계가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다름 아닌 한반도이다. 전통시대 중국의 왕조는 조공-책봉 체제를 모든 외국에 적용하고자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적용된 곳은 동아시아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한반도야말로 조공-책봉이라는 국제질서가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보이는 곳이었다.

한국사에 출현했던 전근대의 왕조 대부분 중국 왕조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치며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였다. 이러한 완전한 의미의 조공-책봉 관계는 여타 동아시아 세계, 즉 일본은 물론이려니와 베트남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왜 우리 선조들은 ‘수치스럽게도’ 중국 왕조에 대해 ‘성실하게’ 사대를 행하였던 것일까? 동아시아 문화권의 정치질서는 어떠한 것이며 그에 대한 주된 이해의 시각은 무엇일까?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조공-책봉이라는 정치 관계는 어떠한 의미를 띠었던 것일까? 나아가 우리는 동아시아 문화권론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지녀야 하고,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 것일까?

3. 동아시아 문화권을 이해하는 주요 시각

전근대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는 대략 20세기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이론이 등장하였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논리는, 일본 학자 니시지마 사다오(西嶋定生)가 제기한 책봉체제론과 미국 학자 페어뱅크(John K. Fairbank)가 주장한 조공체제(Tributary System)론이다. 이들 학설은 제기된 지 이미 50년 이상이 지났지만 현재까지도 가장 유력한 학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근래의 새로운 주장 또한 이들 이론에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 논리를 다소간 변형하고 수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1) 일본 : 니시지마 사다오(西嶋定生)

1960년대의 일본 역사학계에서는 일본사 연구자들 사이에 ‘동아시아’라는 관점이 폭넓게 도입되어 많은 연구가 출현하였다. 니시지마의 ‘동아시아세계론’(1962년)은 이 같은 배경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의 학설은 이후 적지 않은 비판을 받으면서도 그 체계적이고 장대하며 다이나믹한 측면 때문에 오늘날까지 일본 ‘동아시아세계론’의 대표적인 지위를 점하였다. 1970년도 이후 일본 학계의 전근대 ‘동아시아’와 관련된 연구는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니시지마의 ‘동아

시아세계론'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한국에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그의 동아시아세계론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다. (1) 중국·한국·베트남·일본은 중국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권, 구체적으로는 한자·유교·한역불교(漢譯佛敎)·율령과 같은 중국 기원의 문화를 공통요소로 하는 '동아시아 문화권' — 이 표현도 니시지마에 의해 시작되었다 — 이다. (2) 이 문화권은 문화의 확대로 말미암아 성립된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는 동아시아의 독자적인 정치구조인 '책봉체제(冊封體制)'가 존재한다. 그 핵심을 이루는 '책봉체제'란 한대 이후 중국황제가 주변제국 또는 제민족의 수장에게 중국의 작위를 내려 군신관계를 맺게 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로써 중국 내의 신하들이 내신(內臣)이라 불린 것에 대해, 주변민족 또는 국가의 수장은 외신(外臣)이라는 지위에 놓이게 되었다. (3) 여기서 문화권과 정치권이 일체화된 자기완결적 '동아시아세계'가 성립되어, 고대 이후 청대까지 역사적 근거를 갖는 지역세계가 형성되었다.

요컨대 니시지마는 '책봉체제'가 중국왕조를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움직이게 하는 형식이라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는 이 체제를 매개로 실현되어, 그 논리에 따라 자기운동을 시작해 문물 제도(문화)의 파급 또한 그것에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놓쳐서 안 될 중요한 점이 니시지마의 독특한 가설을 낳게 했던 배경이다. 먼저 이론적으로는 니시지마보다 한발 앞서 "한(漢)의 국제적 질서는 황제의 덕(德)·예(禮)·법(法)·왕화(王化)로 구성되는 중국 국내질서가 외부로 연장된 것이다"라고 한 구리하라(栗原朋信)의 주장이 존재한다. 니시지마의 학설은 구리하라의 연구보다 한층 본격적이고 장대하다. 하지만 구리하라의 독특하고 흥미로운 관점을 계승했다는 일면을 부정하기 어렵다. 압축적으로 비교한다면 구리하라의 연구가 '미시적'인 성격이 강한 반면, 니시지마의 그것은 '거시적'인 측면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니시지마의 '동아시아세계론'은 현실적인 측면, 즉 당시의 일본이 처해진 상황에 의해 촉발된 것이다. '동아시아세계 설정'은 당시의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4국이 단순히 한자문화권으로서 만이 아니라 미국의 베트남전쟁 등 제국주의적인 진출에 대하여 단일의 대응을 할 필요가 생겨났다고 한다. 동아시아의 위기와 함께 歐美的 가치의 일원성이 강조되는 상황에 직면하여 동아시아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낼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니시지마로 대표되는 전후 일본학계에 풍미한 동아시아세계론의 배경에는, 동아시아로 회귀하여 거기서 자기 역사와의 관련성을 찾아내려는 의식과, 나아가 구미제국의 동아시아로의 진출에 대한 대응이라는 실천적인 면이 흐르고 있었다.

(2) 미국 : 페어뱅크(John K. Fairbank)

미국에서는 니시지마의 연구보다 조금 앞서 일본과는 약간 다른 입장에서 전통중국의 국제질서에 관한 연구가 행해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미국이 중국과의 외교 교섭 과정에서 부딪힌 문제의 역사적 근원을 이해하기 위해 중국의 전통질서에 접근했다. 당시 그러한 질서가 전개된 무대

를 ‘동아시아(East Asia)’보다 ‘극동(Far East)’이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한 것처럼 일본과 같은 특별한 가치개념은 없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는 ‘동아시아 세계론’보다 ‘전통 중국의 국제질서’의 특징에 먼저 주목하게 되었다. 이 또한 당시의 현재적 관점, 즉 19세기의 서구세계와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시도였다. 여기서 등장한 것이 ‘조공시스템’이었다. 미국 중국사학계의 개척자이자 대부적인 페어뱅크는 1941년에 등사우(鄧嗣禹)와 함께 「청대의 조공제도(On the Ching Tributary System)」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19세기 중국의 외교정책은 오로지 중국의 전통적인 배경, 즉 조공시스템을 배경으로 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고 하여, 처음으로 ‘조공시스템’(Tributary System)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는 19세기 이후의 근대적 국제관계를 ‘조약시스템’(Treaty System)으로 파악하고 여기에 포섭되지 않고 있던 종전의 동아시아의 전통적 국제관계를 ‘조공시스템’으로 정의했다. 19세기 이후 영국으로 대표되는 소위 ‘서세동점’ 하에서 ‘조공시스템’이 ‘조약시스템’으로 강제로 전환될 수밖에 없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중국적 세계질서였던 ‘조공제도’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페어뱅크가 말하는 조공제도의 특징은 후대의 많은 학자들과 크게 틀리지 않는다. (1)조공시스템은 초기 중국인들의 문화적 우월감에서 자연적으로 성장한 것이다. (2)중국의 천자(황제)들은 자기 방어를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이를 이용했다. (3)실제 면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이 본질적이고 중요했다. (4)그것은 중국의 국제 관계와 외교의 수단으로 활용됐다.

그는 조공시스템의 직접적인 연원을 명대로 보고, 명대에서 청 말기에 이르는 조공제도를 분석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조공 의례와 관련된 부분에 많은 서술을 할애했다. 이를 통해 그는, ‘교역과 조공은 동일한 시스템의 양면으로서, 중국은 조공의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고, 주변의 여러 민족, 즉 이적(夷狄)은 교역의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여, 양자 사이에 균형이 잡히면 조공시스템은 지속됐다.’는 인식을 보였다. 1950년대 이후 미국에서 나온 19세기 중국외교사의 여러 연구는 이 같은 성격을 갖는 중국의 특이한 세계 질서(조공체제)로부터, 근대적인 조약체제로 전환되었다는 틀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조공시스템’에 대한 페어뱅크의 이론적 틀은 그보다 훨씬 뒤에 그가 편집한 『중국적 세계 질서』(The Chinese World Order, 1968)의 서장(‘A preliminary framework’)에서 다시 정리되었다. 이 논문집은 주로 명과 청 시기의 대외관계를 다룬 연구 저작이었다. 여기서 새롭게 주목되는 점은 그가 중국의 외교관계, 즉 ‘중국적 세계질서’와 관계를 갖는 공간을, 1) 중국 내부의 정치질서와 문화가 외부로 연장되어 나타난 ‘중국문화지대(The Sinic Zone)’, 2) 중국문화권 밖에 있으나 중국에 위협을 주는 ‘내륙아시아지대(The Inner Asian Zone)’, 3) 먼 곳에 있어 교역할 때만 조공해 오는 ‘외곽지대(The Outer Zone)’의 셋으로 나눈 점이다. 나아가 중국왕조는 자기중심적 세계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주변 각국에 대한 정책목표와 그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이용했다고 말한다. 즉 목표가 지배(Control)일 경우(=A)에는 그 수단으로서 군사적 ‘무력’(A1)과 예(禮)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적 장치(A2), 목표가 교화(attraction)일 경

우(B)에는 문화적이고 이데올로기(德)적 수단(B1)과 불교적 수단(B2), 그리고 목표가 간여(manipulation)일 경우(C)의 수단에는 물질적 이익(C1)과 외교적 방법(C2)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페어뱅크는 이렇게 분류한 다음,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나라들을 들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는 오직 B1만이 적용된 반면 티베트의 경우는 B2와 C2 그리고 A1도 일시 적용되었다고 한다.

4. 중심질서와 소중심질서

정치적으로 볼 때 동아시아 지역은 중국 대륙을 지배하는 권력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중심질서(中心秩序)를 형성해 왔다. 그것은 정치적이고 동시에 문화적인 것이었다. 이를 중화질서(中華秩序) 또는 조공질서(朝貢 혹은 冊封秩序)로 부를 수 있다. 조공질서란 중국 주변 지역의 지배자가 중국 황제를 유일(唯一)·지고(至高)의 지배자로 보고 그로부터 자기 지역의 지배권을 인정받고(책봉) 일정한 기간을 두고 사행(使行)을 보내 중국 황제의 유일·지고의 지배권을 재확인하는(조공) 관계 또는 질서이다. 중국 황제의 지배권은 상징적·명목적인 것으로서 내정에의 간여는 거의 하지 않지만, 중국이 문화적으로 가장 우월하다는 화이사상(華夷思想)에 바탕을 둔 문화적 우월성을 가지고 그 지배권위를 정치적이고 동시에 문화적인 것으로 만든다.

물론 이 설명은 하나의 모델로서의 것이므로 지역에 따라 또는 시대에 따라 그 실제 양상은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다. 중국 주변 국가들 가운데에서 가장 엄격하게 이 조공질서에 편입된 것은 한반도의 여러 왕조와 베트남으로서 19세기 말 중국 밖의 힘이 작용하여 소멸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베트남의 경우는 한국의 경우, 특히 조선왕조의 경우와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베트남에서는 대외적으로 중국에 대하여 충실한 조공국의 형식을 갖추었으나 대내적으로는 황제를 칭하여 중국 왕조의 유일·지고성을 부인하였으며 베트남 주변의 다른 나라·민족에게는 조공을 받아 스스로 하나의 작은 조공 질서를 만들었던 것이다. 물론 중국 왕조도 베트남의 이중적 태도를 알았지만 그리고 그 이중성은 이론상으로는 중국 중심적 조공질서를 거부하는 것이었지만 현실적 필요에 따라 묵인하였다.

한국사의 경우, 중국의 왕조에 조공을 한 바 있던 고구려는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걸쳐 스스로를 질서 중심인 ‘화(華)’에 비정하고 힘을 바탕으로 하여 주변 민족·나라를 정복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소천하질서(小天下秩序)를 구축하여 그들을 ‘속민(屬民)’ 또는 ‘이(夷)’라 불렀고 신라왕에게 고구려 관위제(官位制)와 관련된 의복을 사수(賜授)하거나 하였다. 신라의 경우에도 형식상 중국의 당왕조(唐王朝)의 중심 질서를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당의 지배를 반도 밖으로 몰아내어 백제·고구려의 고토(故土)를 상당 부분 통합하는 데 성공하였는데, 그 근거에는 진흥왕 마운령비(摩雲嶺碑, 568 A.D.)에 보이는 “짐(朕)은 …제왕으로서 건도(乾道, 天道)에 어긋나지 않게 노력한다”는 소천하질서 사상이 있었던 것이다. 일본에 대해서도 발해(渤海)에 대해서도 신라를 상위에 놓는 소중심질서를 주장하였고, 백제·발해의 입장에서도 사정은 서로 비슷하였다.

가장 전형적인 조공국으로 불리는 조선왕조에 들어와서도 유사한 현상은 여러 경우에 볼 수 있다. 세종·세조 시기의 대여진(對女眞) 정책은 중국이 주변 민족 나라에 베푸는 화의적 조공 질서와 아주 유사하다. 여진인은 조선에 입조(入朝)하고 조선에서는 그들에게 명의상 신하임을 나타내는 수직(授織)을 하였고, 경제적인 은혜를 나타내는 회사(回賜)가 있었다. 중국의 명왕조(明王朝)의 감시와 압력 하에서도 이 소중심질서[事小] 정책은 일본에 대해서도 시행되었던 것이다. 14·15세기에 걸쳐 일본의 실권자인 장군이 일본 국왕의 명의로, 그리고 그 밖의 일본 안의 지방 세력도 사신을 조선에 보내어 대장경(大藏經)을 하사해 줄 것을 요청해 오면 조선의 예조(禮曹)는 “절도(絶島)의 원인(遠人)이 조선의 의(義)를 흠모하여 내조(內朝)해 왔으므로 딱 잘라 거절하여 (그들을) 쫓아 보낸다는 것은 대국의 미사(美事)는 아니다”라고 하여 스스로의 ‘대국’의식을 충족시켜 주는 내조행위에 만족을 표하였다. 때에 따라서는 분명히 가짜 사행(使行)임을 짐작하면서도 그들이 조선을 ‘대국’ 또는 ‘상국(上國)’이라고 부르는 것에 ‘편의적’으로 만족해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의 지배자가 엄연히 하나의 소중심 질서의식을 갖고 행동하고 있었음을 여기서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중국 중심의 조공 질서로 편입되는 것이 매우 변형적이었다. 조공 질서에 적극적으로 편입하던 5세기에도 대내적으로는 천황이 ‘치천하대왕(治天下大王)’이라 자칭하였다. 그 뒤 주변의 신라·발해에 대하여 대국을 자처하여 ‘관념적 우위’를 계속 주장하였으나 신라는 언제나 이를 받아들이지기를 거부하였다. 신라가 당과 분유가 와중에 있을 때 일본은 신라보다 상위에 있음을 자처하여 마치 중국 황제가 조공국에 보낸 것 같은 위조문서를 보냈으나 신라가 그러한 처사에 불만을 표하는 것을 두고(737 A.D.) “신라국이 항상 지켜야 할 예(常禮)를 어겨 일본 천황의 사지(使旨)를 받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다. 신라에게 조공국이 황제에게 올리는 것 같은 형식의 외교문서를 요구했으나 ‘대국’임을 자처한 신라는 그에 응하지 않고 있다. 중국 주변의 소천하질서가 끝나는 중국중심의 중심 질서에 힘으로 파괴되거나 변경을 강요당하기도 하였지만, 신라와 일본, 조선과 일본의 경우처럼 서로 실체를 수반하지 않고 관념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우월을 주장하면서, 즉 ‘편의로운 오해’를 통해 소중심질서에 안주하여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다.

정치적 차원에서의 소중심질서와 유사한 것을 문화적인 면에서도 볼 수 있다. 조선과 베트남의 소중화사상은 그 대표적인 것이다. 조선의 소중화 사상은 흔히 이민족(夷民族, 清朝)이 중원을 지배한 뒤에 강조된 것으로 보나 그 이전부터 있었다. 조선왕조의 세종(世宗)은 유교적인 생활규범의 하나인 상례(喪禮)를 언급하면서 중국인은 상중에 슬픔을 나타내는 망애(亡哀)를 하지 않고 음식·가구에 아무 제한을 가하지 않고 식육(食肉)·연악(宴樂)을 해도 “중론(衆論)이 괴이하게 여기지 않으”나 우리는 그럴 수 없으니 충실히 망애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 들어온 상례를 중국인보다 더 철저히 지키겠다는 것이다.

베트남에서는 중국 문화의 정통은 베트남에 있다고 하여 스스로를 중국 또는 ‘문헌의 나라’로 부르거나, 또는 중국을 상대화하여 (남에 대한) ‘북’으로 불렀으며 이족지배(夷族支配)의 청

조를 경멸하였다. 마찬가지로 경향은 조선에게도 소중화사상을 이루게 하였지만 조선의 경우 19세기 말에 가서도 서양문물과 관련하여 조선이 공맹(孔孟)의 도(道)의 적전(嫡傳)임을 강조하며, “온 세계가 다 양이(洋夷)의 문물에 빠져 문화가 파괴되었지만 우리 조선만은 그렇지 않으니 이는 하늘의 뜻”이라고 하는 보수적 논자가 있었던 것이다.

일본에서도 스스로를 화(華)로 설정하여 주변에 이(夷)를 거느린 소중심 질서를 이루고 있다는 의식이 있었으며, 율령(律令)의 수용에 있어서도 그 중의 화를 스스로에 비정(比定)한 것은 잘 알려진 바이다. 근세에 들어와서도 유학적 이상을 일본에 실현하기를 바란 요코이 쇼난(横井小南) 같은 주자학자가 도(유학적 인의)의 유무로 화와 이를 나눔으로써 일본을 문화적 소중심으로 본 예가 있고, 그것은 수구적인 방향이 아니라 개화·진취의 방향으로 나가는 논리적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5. 지역 내 교류와 문화의 주체적 수용

동아시아 문화권을 이해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또 하나 있다. 중국 주변 민족의 중국문화 수용문제는 책봉체제를 통해서 바라보는 관점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중국 문화를 수용하는 측의 주체적인 계기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수용하는 측의 의도가 있고 나서야 다른 문화의 수용이나 그 정착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주변 민족이 중국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때의 주체적인 판단에 근거한 전략적인 선택에 대해서도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예컨대 10세기 독립 당초의 베트남은 중국 왕조의 압력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문화 채용하고 있다. 지방세력 연합체로서의 불안정으로 말미암아 중국의 개입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리 왕조의 지배자들은 적극적으로 중국적인 과거관료제를 도입하여 안정적인 통치체제의 구축을 도모하였던 것이다.

다음으로는 중국을 제외한 주변 각국 간의 상호 교류와 그로 말미암은 문화의 변용에 대해서도 적절히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니시지마 사다오는 동아시아 문화권의 형성과 책봉관계의 긴밀한 관련성에 대해 강조한다. 중국 주변 민족에 한자 문화가 퍼져나가는 계기로서 중국 황제와 주변 민족 수장들과의 정치적 관계는 인정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각지에 문자가 사용되는 것은, 사회 내부에서 문자에 대한 요구가 성숙해진 결과가 아니라 정치적인 계기, 즉 문자에 의한 왕래 성립된 국제질서에 편입된다는 사실에서 기인한 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다. 하지만 한자 수용의 계기가 이처럼 책봉 관계에 있었던 것은 맞다 해도, 한자 문화가 그 사회에 뿌리를 내려 정착해 가는 과정은 조금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 예컨대 1980년대 후반에 발견된 6세기 초 신라의 비석(524년의 울진 봉평 신라비, 6세기 초 영일 냉수리 신라비)을 살펴보자. 이들 비석은 물론 한자로 쓰여져 있으나 모두 전형적인 한문은 아니다. 오히려 신라 고유의 구문법이 강하게 나타난다. 신라의 한자 문화는 중국에서 직접 수용한 것이 아니라, 고구려와의 장기간에 걸친 정치 관계에 의해 성숙된 측면이 강하다. 6세기 신라의 한자 문화에는 고구려적인 요소가 많이

내재해 있었다. 고구려가 변용시킨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기에 신라 언어의 요소가 결합된 형태를 띠었다. 신라는 4세기 이래 오랫동안 중국 왕조와 관계를 갖지 못했지만, 6세기 단계 독자적인 한자문화를 분명히 지니고 있었다. 그 한자 문화는 고구려와의 정치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 것이라 추정된다. 신라의 한자 수용에 있어 중국과의 정치 관계가 반드시 결부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와 같은 사례는 신라와 일본 사이에서도 나타난다. 이는 신라의 목간(木簡)을 통해 엿볼 수 있다. 한국에서 출토된 목간은 현재까지 수백 점에 지나지 않는다. 7세기를 전후한 신라의 목간에는 고대 일본의 목간에서 보이는 특별한 용법이 발견된다. 뿐만 아니라 목간의 모양, 표기 내용, 글꼴, 문서 형식, 용도 등에서 신라 목간은 일본의 선구임이 명확하다. 이를 통해 고대 일본의 한자 문화는 신라와의 관계를 빼놓고는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7세기 후반기 일본의 견당사 파견은 전무하였다. 반면 신라와는 쌍방 35회가 넘는 정도로 빈번하게 사신 왕래를 주고받는다. 이러한 정황을 감안할 때 일본의 한자 역시 신라를 매개로 하여 변용되고 나아가 신라적 요소를 도입하였던 것이라 이해된다. 고대 일본의 한자문화는 신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한자문화의 전파와 수용에 있어 중국과의 정치관계가 큰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과의 외교관계는 연속성이 적었다. 이에 반해 인접한 주변 나라 사이의 왕래와 중층적 교섭은 빈번하였다. 한자의 수용 계기나 정착이라는 점에 주목한다면, 구문법 등을 공유하는 주변 민족 상호간의 교류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을 것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주변 민족 상호간의 교류 속에서 한자 문화의 수용과 정착은 더 쉽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6. 동아시아 세계와 한국사의 독창성

우리 교과서의 조공-책봉 관계에 대한 서술은 매우 애매하면서도 부정확하다. ‘형식적인 외교의 틀에 불과하였다.’거나 혹은 ‘책봉은 정치적 군사적 직접 통치를 할 힘이 미치지 못한 결과이자, 상대국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인정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심지어 ‘조공-책봉 관계는 중주국과 속국의 상하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필요에서 만들어진 의례적인 성격이 강하였다.’고 적고 있기도 한다. 동아시아 세계의 국제 질서 속에서 조공-책봉 체제는 ‘외교의 틀에 불과’하거나 혹은 ‘서로의 필요에서 만들어진 의례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 결코 아니다. 중국 왕조의 강력한 의지와 권위가 투영되고 관철되어 형성되는 것이다. 책봉을 받는 대상 국가로서는 그것에 복종하여 중국 왕조가 요구하는 형식대로 따르거나 아니면 그 질서를 외면하는 길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러한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에서 한국과 일본, 베트남이 취한 방식도 서로 달랐다. 일본은 고대의 일부 시기와 15세기 초를 제외하고는 중국 중심의 조공-책봉 관계를 거부하였다. 중국과 밀접하게 교류하던 고대의 시기에도 일본은 중국에 조공은 바치되 책봉은 받지 않는다는 자세

(有貢無封)를 견지하였다. 자기네 군주에 대해 중국과 동등하거나 혹은 상위에 있다는 의미로 천황이라 칭하였으며 시종일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베트남은 비교적 긴밀하게 중국과 왕래하며 그 향배를 주시하는 자세를 취하였다. 하지만 10세기의 독립 직후부터 황제를 칭하며 내부적으로는 중국과 대등하다는 인식을 지녔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중국에 대해 조공을 바치며 그 책봉을 받아들이고 있 으되, 강렬한 자주의식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표출하였다. 중국의 왕조도 이러한 베트남측의 이중적 태도를 숙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중성은 이론상으로 중국 중심의 조공질서를 거부하는 것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반해 한국의 역대 왕조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였다. 한반도에 세워진 왕조 가운데 황제를 칭하며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시종 중국 왕조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조공-책봉 질서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였다. 사실 일본이나 미국의 학자들이 제시하는 동아시아 국제질서, 즉 책봉체제나 조공체제가 가장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한반도 국가와 중원 왕조 간이다. 한국사에 등장하는 역대 왕조는 왜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이리도 수동적으로 순응하는 자세를 보였던 것일까?

수 양제의 시기였던 607년 일본의 쇼토쿠(聖德) 태자가 수의 조정에 사신을 보내, “해 뜨는 곳의 천자가 해 지는 곳의 천자에게 글을 보낸다. 잘 지내는가?(日出處天子致書日沒處天子, 無恙?)” 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수 양제는, ‘오랑캐의 글이 무례하니 다시는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러한 국서의 전달을 두고 일본사에서는, 쇼토쿠 태자의 자주성 내지 중국에 대한 대등 의식이 나타난 것이라 하여 상찬해 마지않는다.

만일 당시 한반도에 존재하던 국가, 즉 백제나 신라 고구려라면 어떠했을까? 한반도의 삼국 이라면 양제 시기의 기세등등하던 수 정권에 대해 감히 이러한 언사를 사용하지 못했을 것이다. 설령 그러했다 해도 당시 수 양제가 일본에 대해 그러했던 것처럼, 일소에 부치고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쇼토쿠 태자가 국서를 보낸 후 몇 년이 안 되어 고구려는 수양제로부터 전면적인 정벌 전쟁의 대상이 된다. 그 명분은 수 중심의 천하 질서를 거부한다는 것이었다. 그러한 이유에서라면 쇼토쿠 태자의 국서는 즉각적인 토벌 전쟁을 불러일으켜야만 했을 것이다. 하지만 수양제는 그렇지 않고 불쾌감만을 표하는 것으로 그쳤다.

한반도의 역대 정권이 중국의 눈치를 살피며 조공-책봉 관계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을 두고, 중국 왕조의 현실적인 위협과 지리적인 인접성을 빼고는 달리 설명할 도리가 없다. 한반도는 일본과 달리 중원의 왕조와 육지를 통해 바로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 전근대의 교통 여건 상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한 해양은 대단히 심각한 장애물이었다. 13세기 몽골에 맞서 고려가 강화도로 천도하자, 몽골 군대는 그 작은 물길을 건너지 못한채 내륙으로만 횡행하였다. 같은 시기 일본은 쿠빌라이가 파견한 사자를 참수하기까지 한다. 몽골은 불패를 자랑하며 유라시아 대륙을 석권하고 있었다. 그러한 몽골의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일본에 게는 바다라는 믿음직한 장애물이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쿠빌라이가 야심차게 추진한 두 차례

의 일본 원정도 결국 그 바다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실패로 돌아가고 만다.

반면 한반도는 중국과 육지로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국가가 중국 왕조의 권위에 거스를 경우 즉각적인 정도의 대상이 되었다. 수양제와 당태종 시기 고구려는 중국의 요구에 불응하다가 대대적인 정벌을 받아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7세기 중반에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하는 것도 다름 아니라 중원 왕조인 당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일신라 역시 당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당의 군대와 맞서 싸워야만 했다. 중국 왕조의 위협과 군대 파견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고려 시대에는 물론이려니와 조선 역시 중국 왕조의 군사적 위협에 지속적으로 시달려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사의 여러 나라가 중국의 정치적 군사적 요구에 순종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의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그것은 바로 정권 자체의 존립을 뒤흔드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거리의 인접성은 남방의 베트남과도 차이가 있었다. 베트남도 중국과 육지로 바로 잇닿아 있다. 하지만 북방의 중국인들에게 열대 우림지대라는 생소하고 부담스러운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다. 그러기에 베트남은 10세기의 독립 이래 한국에 못지 아니할 만큼 빈번히 중국의 침략을 당했지만, 기후 및 자연 환경을 이용하여 빈번히 격퇴시킬 수 있었다. 베트남이 중국을 북국(北國), 혹은 북(北)이라 지칭하며 내부적으로 황제를 칭할 수 있었던 것(外王內帝)도 바로 이러한 지리적 조건에 힘입은 바 크다.

이처럼 한반도의 역대 국가가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 즉 조공-책봉 체제에 순종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하여 문화적으로도 유사한 모습을 보였는가 하면 그것은 결코 아니다. 한국사에서는 중국적인 정치 질서나 문화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추종하여 답습하는 사례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고대 이래로 중국적 요소의 도입 자체에 극히 신중한 자세를 취하거나, 혹은 채용한다 하더라도 고유의 질서나 여건에 맞춰 변용시켜 간다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양상은 고대 일본, 특히 다이카 개신(大化改新) 전후 일본사의 동태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7세기의 일본은 중국적 문화 요소와 정치 제도의 도입에 극히 열성적이었다. 이 시기 일본은 중국의 정치제도를 모방한 율령체제, 즉 율령국가를 지향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중국의 제도, 즉 율령을 아무런 변형 없이 원형 그대로 일본 사회에 적용하려 들었다. 이를 위해 수와 당에 대해 빈번히 사자를 파견하였다. 일본사에서 견수사, 견당사라 칭해지는 사절단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도입한 중국의 제도는 거의 아무런 가감 없이 채택되었다. 645년에 단행된 다이카 개신의 개혁 내용은 당의 율령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었다. 특히 반전수수법(班田收授法)과 조용조제는 당의 균전제와 조용조제를 액면 그대로 따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치 제도와 관련 법령도 당을 모방하고자 했다. 고대 일본의 령(令)을 통해 당령(唐令)을 복원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당 제도의 모방은 철저하였다. 이러한 모방은 비단 법제와 정치기구에 그치지 않았다. 고대 일본의 수도인 후지와라쿄(藤原京)나 헤이조쿄(平城京)는 당의 장안을 크기만 줄여 그대로 본뜬 것이었다. 가옥의 형태 역시 중국을 그대로 모방하였다. 전통시대 일본의 가옥은

당대 중국의 건축물 형태와 거의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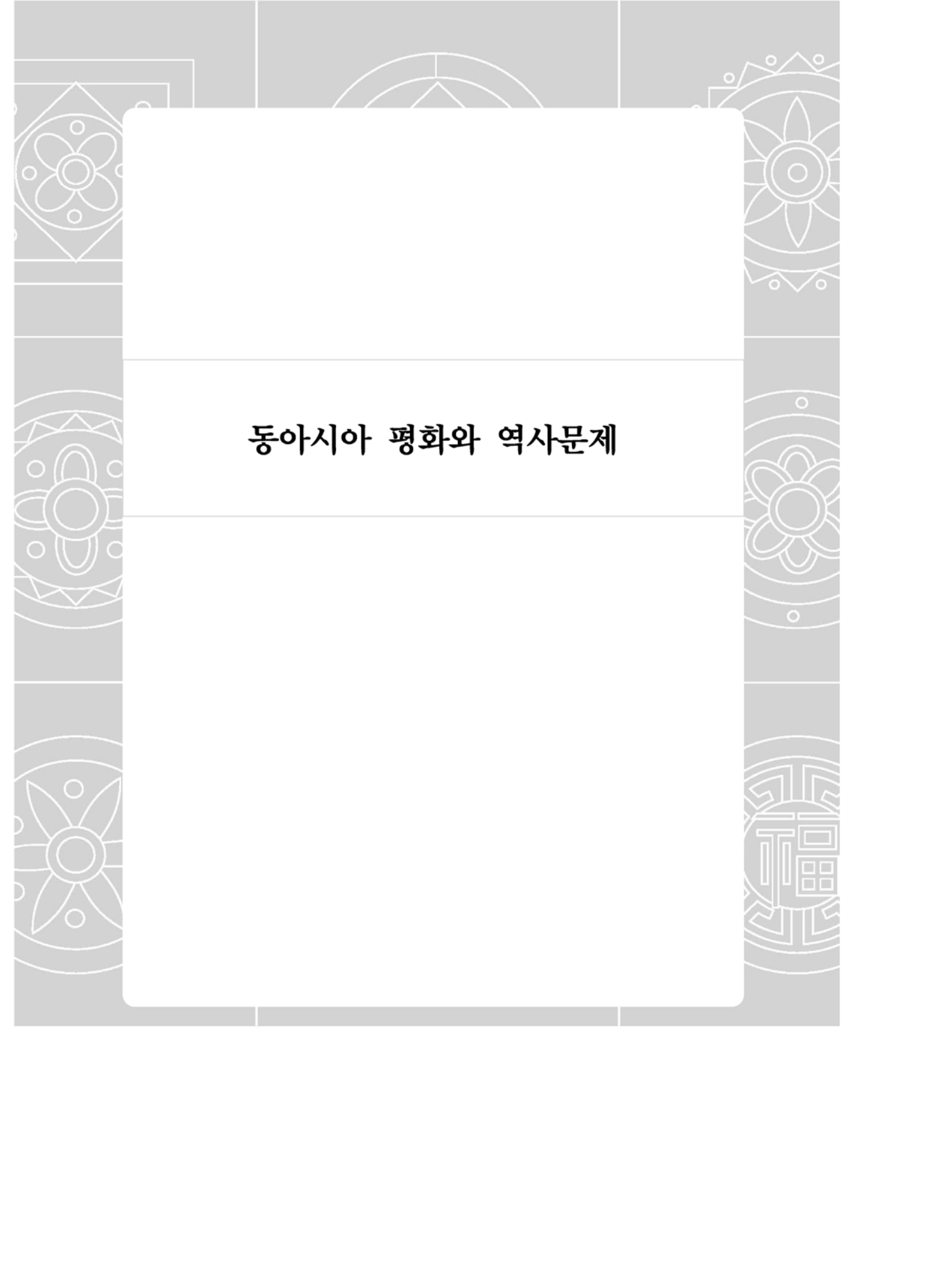
한국사상의 역대 왕조가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순종적인 자세를 보인 것은 지리적 여건상 불가피하였다. 하지만 문화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볼 때 한국의 역사는 중국적 요소의 도입에 자못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면모가 드러난다. 이러한 점은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하면 매우 두드러진다. 동아시아 문화권이 정치와 문화가 긴밀히 결합된 지역세계였으나, 정치적 항배 내지 경향성이 문화적 독자성까지 규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한국의 문화사는 그러한 동아시아 세계의 구조와 성격을 여실히 보여준다.

7. 맺음말

근래 불행하게도 동아시아 각국에 강렬한 민족주의 경향이 점증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경제적 발전과 함께 자국 문화 및 자국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바깥 세계를 향해 공격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실로 21세기 이래의 중국 사회는, 이른바 ‘애국주의’란 것이 그 이전 절대적 영향력을 떨치던 ‘유물 사관’의 지위를 대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 역시 마찬가지이다. 20세기 중반 일본의 지식인 및 학계는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침략을 참회하는 목소리가 대세를 점하였다. 이로부터 나아가 대외 침략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일본 근대의 자본주의에 대한 성찰과 분석에 연구의 중점이 두어졌다. 하지만 지금의 일본 학계는 이러한 반성으로부터 거리가 멀다. 오히려 근대 일본의 역사 학계에서는, 근대 이후의 일본사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궁극적으로는 합리주의와 온건 개혁론이 국수적 전체주의에 대해 우위를 점하는 방향을 취하였다고 말한다. 일본 근현대사는 최종적으로는 민주와 평화라는 가치를 추구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익 민족주의는 동아시아 세계의 화합과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걸림돌이다. 동아시아 세계의 진정한 화해와 발전을 위해서는 자국 중심의 왜곡된 역사 이해를 버려야만 한다. 역사의 왜곡에 기반한 주변 국가에 대한 정신적 폭력을 떨쳐내야만 동아시아의 새로운 시대를 개척해 갈 수 있다.

자국 중심주의의 극복과 균형잡힌 역사 인식, 이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우리 학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만 하는 덕목이다. 한국인으로서 자국사에 대하여 긍지를 지니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편협되고 왜곡된 역사 인식은 우리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뿐이다. 다른 나라의 역사 왜곡을 비판한다면, 똑 같은 시각으로 우리 자신은 왜곡된 역사 인식을 지니고 있지 않은지 성찰해 보아야만 한다.

The page features a decorative border with traditional Korean patterns. On the left and right sides, there are vertical bands containing repeating motifs such as stylized flowers, geometric shapes, and a circular emblem with a central square. The top and bottom edges also feature similar patterns, including a large circular motif with a central square and a smaller circular motif with a central square. The background is a light gray color.

동아시아 평화와 역사문제

동아시아 평화와 역사문제

이 현 주
동 북 아 역 사 재 단

2

INDEX

- I. 역사와 정치: 왜 역사가 문제인가?
- II. 동북아시아의 민족주의 역사관
- III. 동북아정세에 투영된 역사
- IV. 동아시아 역사 논쟁과 갈등의 기원
- V. 역사 갈등 치유 노력과 그 한계
- VI. 평화와 협력을 위한 역사적 과제

112TH CONGRESS }
2d Session
COMMITTEE PRINT
{ S. PR. }
112-??

CHINA'S IMPACT ON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AND QUESTIONS FOR THE SENATE

I. 역사와 정치: 왜 역사가 문제인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영향 (impact) 미 상원 보고” (2012)

한반도 통일 시 중국이 영토권을 주장할 것인가?

역사문제를 둘러싼 더욱 복잡한 대립전선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갈등 요인

“Asian Paradox”

3

4

II. 동북아시아의 민족주의 역사관

◆ 민족주의 역사학의 기원

- 레오폴트 폰 랑케 (Leopold von Ranke)
- 국민국가의 성립: 영토 + 역사
- 독일중심의 낭만적, 국수적 역사 철학

II. 동북아시아의 민족주의 역사관

◆ 냉전종식/민족주의 재부상

- 역사문제의 정치화
- Asian Paradox
- 경열정냉(經熱政冷)
- 신 민족주의 대두
(The New Nationalism)



III

동북아 정세에 투영된 역사



Ⅲ. 동북아정세에 투영된 역사

분단의 역사: 외세의 한반도 분단 시도 사례

- ① 1592년 임진왜란
 - ② 1894년 청일전쟁, 영국 김벌리 외상
 - ③ 1896년 5월, 1898년 3월 일본이 러시아에 분할 제시
 - ④ 1903년 러시아가 일본에 분할 제시
 - ⑤ 1945년 미국과 러시아에 의해 분할 현실화
 - ⑥ 한국전쟁, "the narrow neck"
 - ⑦ 휴전선
- 역사는 스스로 되풀이 하는가?



Ⅲ. 동북아정세에 투영된 역사

아시아 긴장구도인가 평화구도인가

- ① 냉전적 대립
- ②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
- ③ 영토문제와 관련된 대립
- ④ 민주주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대립
- ⑤ 역사 갈등

+트럼프

Ⅲ. 동북아정세에 투영된 역사



출처: "TPP·RCEP 참여국 현황", 2016.11.13. 뉴시스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 pict_id=NISI20161113_0012389477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IV

동아시아 역사 논쟁과 갈등의 기원

IV. 동아시아 역사 논쟁과 갈등의 기원

◆ 왜곡되어 도입된 근대유럽역사학의 영향

- 유럽의 근대역사학 전파: 제국주의적 역사학
- 일본중심의 우월적 역사관
- 중국의 중화주의 사관
- 근현대 한국의 시련과 역사왜곡

◆ 고대 사료에서 중국의 압도적, 독점적 지위

- 유럽의 로마와 동아시아의 중국

IV. 동아시아 역사 논쟁과 갈등의 기원

◆ 중국어: 문자와 언어학적 특성 문제

- 표의문자인 한자의 시대적 발음 변화
: 시간의 추이에 따라 '형태'와 '발음'이 변화



현대표준음 [guó]

中古音

上古音

?

突厥 土耳其 東胡 肅慎 靺鞨 女眞 契丹
加拿大 舊金山 桑港 纽约时报 希拉里 特朗普

IV. 동아시아 역사 논쟁과 갈등의 기원



IV. 동아시아 역사 논쟁과 갈등의 기원

◆한·중·일 3국의 근대 서구화 과정의 역사 COMPLEX

- 근대화 과정에서의 집단적 콤플렉스
- 서구와 굴절된 민족 정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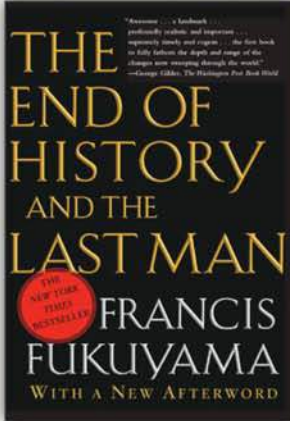
: 의화단 운동 당시 중국분할 관련 풍자만평_18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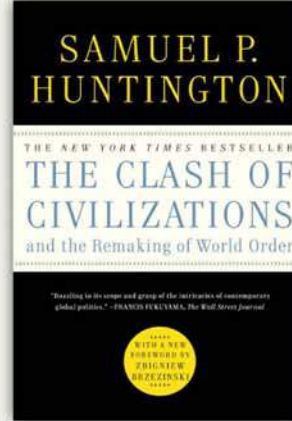
: 아편전쟁 당시 영국과 청제국 풍자 만평

IV. 동아시아 역사 논쟁과 갈등의 기원

- ◆ 역사인식에 대한 전후 냉전구조의 영향
 -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냉전 이후



"역사의 종언"(프란시스 후쿠야마)



"문명의 충돌"(사무엘 헌팅턴)

IV. 동아시아 역사 논쟁과 갈등의 기원

- ◆ 한·중·일의 민주주의 수준과 성격
 - 정치제도의 개방성 : 언론과 시민사회



IV. 동아시아 역사 논쟁과 갈등의 기원

- ◆ 보편적 가치에 대한 공통인식 부재
 - 공통의 종교 및 사상(기독교)



IV. 동아시아 역사 논쟁과 갈등의 기원

- ◆ 주변국의 감시기능 부재
 - 모두가 당사자



IV. 동아시아 역사 논쟁과 갈등의 기원

- ◆ 지역통합 부재
 - EU와 ASEAN



IV. 동아시아 역사 논쟁과 갈등의 기원

- ◆ 자국 역사기술 중심 교육
 - 삼국의 역사교과서



IV. 동아시아 역사 논쟁과 갈등의 기원

◆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

- 동아시아와 G2



◆ 한반도 분단 상태의 지속

-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V

역사 갈등 치유 노력과 그 한계

V. 역사 갈등 치유 노력과 그 한계

- ◆ 사죄발언과 망언
- ◆ 한일역사공동위원회
- ◆ 한중일 NGO활동
- ◆ 중등교과속 동아시아 역사
- ◆ 동아시아사 교재 및 부교재 공동 개발
- ◆ 역사학계 간 교류

VI

평화와 협력을 위한 역사적 과제

VI. 평화와 협력을 위한 역사적 과제

- ◆ 개방된 역사인식
(Awakening of Historical Understanding)
 - 지도층의 열린 인식
- ◆ 역사서술 상의 신뢰 구축 조치
(CBM principle in historiography)
 - 인문학적 양심
 - 교과서 검정 등 역사정책에 있어 상호협력
- ◆ 정부의 적극적 의지와 역할
 - 역사 대화를 위한 열린 자세
 - 공동 역사교재 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
- ◆ 학술분야의 자율성 확대
 - 정부와 언론의 협력

VI. 평화와 협력을 위한 역사적 과제

- ◆ 각 분야 교류의 확대를 통한 국민간의 이해 증진
 - 민·관·학의 공동 노력
 - 한중인문교류
 - 전근대 삼국의 외교사절에 대한 연구
 - 공동 역사유적 발굴
 - '구텐베르크 프로젝트'

VI. 평화와 협력을 위한 역사적 과제

◆ EU, UNESCO등 Outsider의 모델 활용

- 게오르크-에케르트 국제역사교과서 연구소
- EUROCLIO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동북아역사재단



VI. 평화와 협력을 위한 역사적 과제

◆ 동아시아사 기술개념 전파

- 민간주도의 동아시아사 교재 프로젝트



VI. 평화와 협력을 위한 역사적 과제

◆ 미국의 역할 ;

“역사문제에서 소프트파워를 발휘하라”

- 냉전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 구한말 미국의 대조선 정책
 - 연성화 전략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조선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 고조선사 연구 최근 동향 -

고조선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 고조선사 연구 최근 동향 -

박선미 (동북아역사재단)

1. 머리말

근대사학의 고조선사 연구는 전통시대의 고조선에 대한 인식을 크게 전환시켰고, 이후 학계와 사회의 꾸준한 관심으로 현재는 고조선사를 주 전공으로 한 학위자들이 대거 배출되고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대학에서 고조선을 주제로 한 석사학위 논문이 발표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말에는 박사학위 논문이 발표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고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전문으로 하는 연구자가 늘면서 다섯 명의 박사 학위자들이 배출되어 모두 일곱명이나 된다. 현재도 대학원에서 정규 훈련을 받은 연구자들이 인접분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석사와 박사학위를 준비하고 있어 고조선사 전문 연구 인력이 더욱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¹⁾ 더욱 고무적인 것은 우리 역사의 활동무대였던 중국 동북지역의 고고학 자료에 대한 고고학계의 전문 연구자도 늘

1) 대학의 역사 관련 학과에서 고조선을 주제로 한 학위자의 주요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음.

최운섭	1988	고조선사회의 성장과정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송호정	1990	고조선의 위치와 족속문제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강원	1995	고조선 위치비정에 관한 연구사적 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김태욱	1998	고조선의 영역에 관한 일고찰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채지용	1998	고조선의 멸망 원인-한국의 對匈奴政策과 관련하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하문식	1998	동북아시아 고인돌문화의 연구-중국 동북지방과 서북한지역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송호정	1999	고조선 국가형성 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남중	2000	위만조선의 영역과 왕검성의 위치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선미	2000	기원전 3-2세기 고조선문화와 명도전유적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준형	2000	예맥의 형성과정과 고조선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장록	2005	삼국유사 고조선조 내용에 대한 고찰	여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중서	2006	고조선과 한사군의 위치 비정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임병용	2007	조선 후기 역사서에 나타난 고조선 인식: 이종휘의 「東史」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선미	2008	화폐유적을 통해 본 고조선의 교역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정희	2008	중국의 기자조선에 대한 인식	선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원진	2009	기자조선 연구: 요서지역 상주 청동예기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준형	2012	고조선의 성립과 발전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오현수	2014	고조선의 형성과 변천과정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김남중	2014	위만조선의 성립과 발전 과정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외 역사학분야는 아니지만 경희대학교 한의학과에서 1987년과 1989년에 김종열의 「고조선시대의 의학내용 연구: 단군신화를 중심으로」와 권학철의 「상고시대와 고조선시대의 의학에 관한 문헌적 고찰」이라는 제목의 석사학위논문이 발표되었다.

고 있어서 문헌과 고고학 자료를 결합한 고조선 연구가 더욱 활기를 띠 것이라는 점이다.

고조선에 대한 관심과 이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되고 있는 이즈음, 최근 발표된 논저를 중심으로 학계의 연구 동향을 정리해보는 것도 향후 고조선 연구의 방향을 점검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등장 시기와 국가 성립 연대

고조선이라는 용어는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을 포괄하는 합칭(合稱)의 의미가 있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단군조선만을 고조선의 범주에 넣는 경우가 있고,²⁾ 일연의 『삼국유사』 서술 체계를 따라 단군조선과 기자조선을 고조선의 범주에 넣고 위만조선을 따로 분류하여 보기도 한다.³⁾

그러나 그 범주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상관없이 고조선이라는 정치체가 역사에 등장했던 시기와 국가 성립 연대에 대한 견해는 첫째, 문헌의 해석과 함께 중국 동북지역 및 한반도에서 나타나는 비파형동검문화의 주인공을 누구로 보느냐 둘째, 국가를 상징하는 왕의 존재와 전국시대 고조선과 연의 전쟁 기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조선이라는 명칭이 나타나는 가장 이른 시기의 문헌은 『관자』⁴⁾이다. 『관자』 규탁편과 경중갑편에는 조선이 제와 문피 교역을 하였음이 기록되어 있다.⁵⁾ 이 기록을 한대에 윤색된 허구로 보는 학자도 있으나 대체로 기원전 7세기 대의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본다. 학계는 이 기록을 토대로 하여 고조선이 늦어도 기원전 7세기에 중국 내륙의 여러 국가들 사이에 이름이 나고 이들과 교류하였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내 사료로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단군신화가 비교적 이른 시기의 기록이다. 여기에는 단군이 요 즉위 50년인 경인년에 개국하였다고 되어 있다. 『동국통감』에도 단군이 요 즉위 25년 무진년에 고조선을 건국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고조선 건국을 기원전 2333년으로 보는 설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학계는 이 건국연대를 그대로 신빙하기보다는 다른 문헌기록과 고고학 자료를 종합해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⁶⁾ 그러나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단군신화가 어느 정도의 역사적 사실을 반영한다고 보고, 단군신화에 반영된 고조선을 신석기시대의 단군조선으로 이해하기도 한다.⁷⁾

2) 윤내현의 견해가 대표적이다.

3) 서영수의 견해가 대표적이다.

4) 『관자』는 전한 말의 유향(劉向, 기원전 79-8년)이 편집한 책이다. 책 자체는 관중(기원전 ?-645년)에 가탁(假託)하였으나, 그 내용은 법가·도가·음양오행가 등 제자(諸子) 사상이 아우러진 종합 치리서(治理書)로 알려져 있다. 저작 연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으나 고조선 기록이 나오는 규탁편과 경중갑편은 춘추시대 이래의 전승을 바탕으로 전국시대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5) 『管子』 23, 揆度篇 第78 ‘桓公問管子曰 吾聞海內玉幣七策 … 發朝鮮之文皮一策也.’

『管子』 23, 輕重甲篇 第80 ‘桓公曰 四夷不服 … 發朝鮮不朝 請文皮毳服而以爲幣乎 … 則四夷不得而朝矣.’

6) 노태돈, 2000, 「역사적 실체로서의 단군」 『한국사시민강좌』 27, 1-20쪽.

7) 김정배, 1973, 「韓國古代國家의 起源論」, 『白山學報』 14, 백산학회 ; 1984, 「古朝鮮의 再認識」, 『韓國史

고고학적으로는 비파형동검문화를 남긴 주인공과 고조선을 연결시키는 논의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비파형동검은 요허를 기준으로 서쪽에는 조양 일대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고 동쪽에는 심양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과 요동반도에 넓게 분포하며, 한반도 전역에도 상당수가 발견되었다. 이렇게 광역에 걸쳐 분포하는 비파형동검문화의 담당자를 고조선으로 보는 견해⁸⁾가 있으나, 세부적으로 구분해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요서지역의 비파형동검문화의 담당자를 예맥으로 보는 견해,⁹⁾ 요서지역의 이른 시기 청동기문화인 하가점하층문화를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열면서 발전시킨 문화로 파악한 견해,¹⁰⁾ 요서의 조양 일대에 분포하는 비파형동검문화를 고조선의 초기 문화로 보는 견해¹¹⁾ 등이다. 나아가 요령지역의 신석기문화를 고조선이 등장하는 시원적인 단계의 문화로 보고, 이후 농경문화의 확대 및 청동기문화가 시작되면서 국가적 성장을 하였을 것으로 보기도¹²⁾ 한다.

이와는 달리 비파형동검문화의 담당자를 동호¹³⁾로 보거나 미송리형토기가 나오는 청천강 이북 지역을 예맥 계통의 문화로, 대동강 유역의 팽이형토기문화를 고조선이 발전시킨 것으로 보아 예맥과 고조선을 구분하여 보는 견해¹⁴⁾도 있다.

최근 신진학자들의 고조선 연구는 문헌사학과 고고학의 연구방법론을 접목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은 조양 일대에 분포하는 비파형동검문화를 고조선의 초기 문화로 보고 중국의 연, 진, 한과의 각축 과정에서 고조선이 점차 요동과 한반도 쪽으로 이동해 왔다고 보고 있다.¹⁵⁾

그렇다면 고조선은 처음부터 국가체로 등장한 것일까? 학계는 국가성립과 관련하여 왕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주목한다. 『삼국지』 동이전 한조(韓條)에 인용된 『위략』에 중국 전국시대의 연이 왕을 칭하던 시기에 고조선도 왕을 칭하며 연과 대립하였다는 기사가 나온다.¹⁶⁾ 연이 칭왕(稱王)한 시기는 易王(기원전 332~321) 때 이므로 고조선도 이 시기에 왕을 칭하며 연과 맞설 정도의 군사력을 갖추었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학계는 이를 근거로 하여 고조선도

論』14, 국사편찬위원회 ; 1985, 『한국고대의 국가기원과 형성』, 고려대학교출판부 ; 1997, 『고조선의 국가형성』, 『한국사4 - 초기국가: 고조선-부여-삼한-』4, 국사편찬위원회.

8) 윤내현, 1986, 『한국고대사신론』 일지사.

9) 정한덕, 1990, 『美松里型土器の生成』, 『東北アジアの考古學』, 天池.

임병태, 1991, 『고고학상으로 본 예맥』, 『한국고대사논총』1,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박경철, 1999, 『요서비파형동검문화의 재인식』, 『先史와古代』12, 한국고대학회.

10) 한창균, 1992, 『고조선의 성립배경과 발전단계 시론-고고학 발굴자료와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33, 국사편찬위원회.

11) 서영수, 1988, 『고조선의 위치와 강역』, 『한국사시민강좌』2, 일조각; 2007, 『고조선의 발전과정과 강역의 변동』 『고조선의 역사를 찾아서-국가·문화·교역』, 학연문화사, 18~55쪽.

12) 김정학, 1987, 『고고학상으로 본 고조선』, 『한국상고사의 제문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70~83쪽 ; 1990, 『고조선의 기원과 국가형성』, 『韓國上古史研究』, 범우사, 171~177쪽.

13) 윤무병, 1987, 『요령지방의 청동기문화』, 『한국상고사의 제문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30~31쪽.

14) 송호정, 2000, 『고조선 중심지 및 사회성격 연구의 쟁점과 과제』, 『한국고대사논총』10, 한국고대사회연구소, 27~35쪽.

15) 앞의 각주 1)의 표에 제시된 박준형, 김남중의 견해가 대표적이다.

16) 『三國志』卷30, 烏丸鮮卑東夷傳30, 韓 인용 『魏略』. ‘昔箕子之後朝鮮侯 見周衰燕自尊爲王 欲東略地, 朝鮮侯亦自稱爲王 欲興兵逆擊燕以尊周室. 其大夫禮諫之乃止. 使禮西說燕 燕止之 不攻.’

기원전 4세기 중엽에 왕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체로 존재하였다고 보고 있다.¹⁷⁾

그런데 ‘왕’이라는 명칭은 중국식 표현이다. 고조선이 ‘칭왕’하기 이전에 왕을 나타내는 고조선 고유의 용어가 있었을 것이다. 신라에 왕이라는 표현이 들어오기 전에 왕을 ‘거서간’, ‘니사금’ 등으로 부른 사실은 시사하는 바와 크다. 근대사학 성립 초기에 논의되었던 연구를 계승하여 ‘단군왕검-텡그리(tengri)-당굴얼검’ ‘그치’ ‘칸’ 등 왕에 상응되는 용어에 대한 심화연구가 필요하다.

3. 도읍·중심지의 위치

문헌에 고조선의 도읍으로 나오는 지명은 阿斯達(아사달), 무엽산(無葉山), 백악(白岳), 백악궁(白岳宮), 평양성(平壤城), 궁홀산(弓忽山), 금미달(今旃達), 장단경(藏唐京), 험독(險瀆), 왕검성(王儉城), 왕험성(王險城) 등이다. 이 가운데 장단경까지가 단군과 관련된 도읍명이며, 험독, 왕검성, 왕험성은 위만과 관련된 도읍명이다. 단군조선의 도읍명은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고 중국 측 사료에는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단군조선의 도읍과 관련된 기록을 보면 『삼국유사』에서 약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위서」를 인용한 부분에서는 단군왕검이 아사달에 도읍하였다고 전하고, 그 위치를 무엽산, 백악이라고 한 「經」을 인용하면서 고려의 개성 동쪽에 있던 백악궁이라고 하였다. 「고기」를 인용한 부분에서는 단군이 처음 평양성에 도읍하였다가 백악산 아사달에 옮기었는데, 백악산 아사달을 공홀산 금미달이라고도 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이어서 기자가 조선에 봉해지자 단군은 장단경으로 도읍을 옮기고 후에 다시 아사달로 돌아와 산신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를 정리해보면 무엽산과 백악 혹은 백악궁은 당대에 전해지는 아사달의 위치를 적어 놓은 것이므로, 단군과 관련된 도읍은 「위서」의 아사달, 「고기」의 평양성-백악산 아사달-장단경-아사달이 되는 것이다.

위만과 관련된 험독, 왕검성, 왕험성의 경우 국내 사료에는 ‘왕검’이라는 용어로, 중국측 사료에는 ‘왕험’이라는 용어로 기록되어 있다. 학계는 왕검과 왕험을 같은 지명의 이칭으로 본다.

따라서 고조선의 도읍에 대한 논의는 아사달, 평양성, 장단경, 험독, 왕검성 등에 대한 위치를 추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안타깝게도 국내학계는 이들 도읍지에 대한 위치비정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단군조선의 도읍지와 관련해서는 자료가 극히 적고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위서」의 아사달과 「고기」의 평양성-백악산 아사달의 관계에 대한 초보적인 검토도 이루어지지 못한 형편이다. 다만 신채호가 이 둘의 관계에 대한 고찰 없이 아사달을 하얼빈으로 비정한¹⁸⁾ 이후 이병도는 「위서」의 아사달과 「고기」의 평양성을 같은 지명으로 보고 단군의 첫 도읍지를 현재의

17) 이에 대해서는 고조선사연구회·동북아역사재단, 『고조선사 연구 100년』(2009, 학연문화사)을 참조 바람.

18) 신채호, 1972, 『朝鮮上古史』 『丹齋申采浩全集』, 형설출판사(1931.6.10~1931.10.14, 조선일보 연재).

평양으로 보았으며 이도(移都)한 장단경을 『고려사』 「지리지」 儒州條·『응제시주』·『세종실록 지리지』 平壤府條 및 文化縣條의 기록을 따라 구월산으로 비정하였다.¹⁹⁾ 윤내현도 아사달을 현재의 평양으로 비정하고 있다.²⁰⁾

고고학적으로 접근할 때 고조선의 초기 중심지로 거론되고 있는 곳은 조양 일대이다. 이 지역은 비파형동검문화가 가장 이른 시기에 발전한 곳이다. 이후 비파형동검문화의 중심지는 조양에서 심양으로 점차 동쪽으로 옮겨진다.²¹⁾ 이와 같이 중국 동북지역의 고고학 자료에 대한 소개와 이해가 깊어지면서 문헌기록을 보완하는 중심지 비정이 이루어졌는데, 서영수는 비파형동검이 이른 시기에 나타나는 요령성 조양일대를 아사달로 비정하였다.²²⁾

『사기』 조선열전이 전하는 ‘위만의 도읍 험독’과 ‘한의 군대에 의해 최후 함락된 왕검성’은 어디에 있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 부분에서 학계의 견해는 거의 일치한다. 현재의 평양에 왕검성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한이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설치한 낙랑군의 수현(首縣)인 조선현이 문헌에 등장하고, 고고학적으로도 평양 일대에서 한 계통의 무덤과 유물, 군현 관련 봉니(封泥) 등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낙랑군의 수현인 조선현이 위만조선의 중심지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다.²³⁾

그렇다면 실제로 왕검성은 평양에 있었을까? 이에 대한 역사학계의 반론은 윤내현의 견해가 유일하다고 생각된다. 그는 위만조선을 고조선[단군조선]의 서쪽 변경에 있었던 제후국으로 파악한다. 그에 따르면 위만조선은 중국 하북성 난하 근처에 있었고 한의 공격에 의해 멸망당하였다. 한은 위만조선의 古土에 한군현을 설치하였다. 아사달은 위만조선과 병립했던 시기 고조선의 도읍이며 현재의 평양에 있었다고 본다.²⁴⁾

최근 신진학자의 주장가운데 특기할 만한 것으로는 험독을 지명이 아닌 왕기(王畿)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파악한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왕기는 혼하 유역에서 남쪽으로 요동반도의 본계(本溪), 동쪽으로 신빈(新賓) 서쪽 일대가 되며 이는 곧 험독이 된다.²⁵⁾ 그러나 여기에서도 낙랑군 조선현은 현재의 평양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과 같이 고조선의 도읍지와 중심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어 왔다. 오늘날까지도 일치된 견해를 찾기 어려운 것은 도읍으로 비정할 만한 규모의 뚜렷한 고조선 유적을 찾지 못

19) 李丙巖, 1976, 「단군설화의 해석과 아사달문제」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27-43쪽.

20) 윤내현, 1986, 앞의 책, 17-37쪽 및 305-307쪽.

21) 이창규, 2000, 「遼寧 本溪縣 上堡村 출토 동검과 토기에 대하여」 『고고역사학지』16, 61-77쪽.

이후석, 2014, 「요동~서북한지역의 세형동검문화와 고조선-위만조선 물질문화의 형성과정과 관련하여」 『동북아역사논총』44, 149-205쪽.

22) 서영수, 2007, 「고조선의 발전과정과 강역의 변동」 『고조선의 역사를 찾아서-국가·문화·교역』, 학연문화사, 18-55쪽.

23) 각주 17) 참조.

24) 윤내현, 1984, 「중국문헌에 나타난 고조선 인식」, 『한국사론』 14, 국사편찬위원회, 145-156쪽; 1986, 앞의 책, 17-37쪽 및 305-307쪽; 2002, 「고조선의 도읍 위치와 그 이동」, 『단군학연구』 7, 단군학회; 2004, 앞의 책, 339-357쪽.

25) 김남중, 2014, 「위만조선의 성립과 발전 과정 연구」, 서강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53-79쪽.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요서 등 중국 동북지역의 고고학 발굴 동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중국 학계와 교류해야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4. 서쪽 경계의 변천

고조선은 연·진·한과 서쪽 경계를 맞대고 경쟁하였고, 때로는 전쟁을 불사하였다. 이 때문에 고조선의 서계는 부침을 거듭하면서 시기별로 변천되었다. 비록 연 이전 시기 고조선의 서쪽 경계에 대한 뚜렷한 기록은 없지만 적어도 연 및 한과의 경계에 대한 기록은 비교적 명확하다. 즉 문헌에는 고조선이 만번한(滿番汗)과 패수(溍水 혹은 沛水)를 사이에 두고 각각 연 및 한과 마주한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그 경계가 오늘날 어디를 가리키는가를 밝히는 일은 쉽지 않다. 지명 자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데다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2000여년 이전의 지명이 오늘날까지 위치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번한과 패수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다른 사료들을 찾아보아야 한다. 문제는 사료의 기사가 단편적인데다 시대에 따라 당대의 인식이 뒤섞여 있어 어느 것이 진짜이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가려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전통시대 대학자들조차 이에 대한 엇갈린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먼저 고조선과 연의 경계였던 만번한을 살펴보자. 『삼국지』동이전에 인용된 「위략」에는 “연이 장수 진개를 보내 서쪽을 공격하여 2천여리의 땅을 취하고 만번한에 이르러 경계로 삼으니 조선이 마침내 약해졌다.”라고 되어 있다. 고조선이 연에게 서쪽 강역 2천여리를 빼앗기고 연과 새롭게 경계를 삼은 곳이 만번한인 셈이니, 땅을 상실하기 이전 고조선의 서계는 만번한에서 2천리 더 서쪽에 있었다.

만번한의 위치를 찾는 작업은 전통시대 흥여하, 이익, 정약용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오늘날까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견해는 정약용에 의한 것이다. 그는 『한서』지리지 요동군조에 문현(文縣)과 변한현(番汗縣)이 나란히 기록되어 있는 점을 주목하고 만번한을 문현과 변한현의 합성어로 파악하였다. 이 견해는 오늘날 대부분의 고조선 연구자들이 받아들이고 있으며, 만번한의 위치에 대한 비정은 문현과 변한현의 위치 비정으로부터 접근되고 있다.

문현과 변한현으로 거론되고 있는 곳은 하북성 동북부의 난하,²⁶⁾ 요서의 대릉하,²⁷⁾ 요동의 해성과 요양을 잇는 선²⁸⁾, 요동반도를 남서-동북으로 가르는 천산산맥(千山山脈) 이서²⁹⁾ 한반도의 박천강(현재의 평안북도 대령강),³⁰⁾ 청천강 하류와 대동강 상류를 연결하는 선,³¹⁾ 청천강

26) 윤내현, 2004, 『고조선 연구』, 일지사 (1994년 초판 발행), 195-198, 230쪽.

27) 정인보, 1946, 『조선사연구』(상), 서울신문사, 1-125, 157-217쪽.

28) 신채호 저, 이만열 역, 1998, 『역주 조선상고문화사』,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264-266쪽.

신채호 저, 박인호 역, 2003, 『平壤 溍水考』 「단재 신채호의 조선사연구초」, 동재, pp.63-65.

29) 서영수, 1999, 「고조선의 대외관계와 강역의 변동」, 『동양학』 29, 단국대학교동양학연구소.

박준형, 2012, 「기원전 3-2세기 고조선의 중심지와 서계의 변화」 『사학연구』108호, 1-37쪽.

30) 이병도, 1983, 「단군설화의 해석과 아사달 문제」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35-43쪽; 1933, 『溍水考』

선³²⁾ 등 이다. 학계의 다수는 기원전 3세기 전반기에 고조선과 연이 천산산맥을 자연계선으로 삼아 마주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조선이 진개에 의해 서쪽 지역을 상실하기 이전에는 요하 이서의 대릉하 유역을 포괄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³³⁾

다음으로 한과의 경계인 패수를 살펴보자. 『사기』 조선열전은 “한이 흥함에 그곳이 멀어 지 키기 어려우므로 요동고새를 수리하고 패수에 이르러 경계로 삼았다.”고 하였다. 위만이 고조선으로 망명한 노정에서도 ‘동쪽으로 달아나 새를 나와 패수를 건넌 것’으로 나온다. 패수는 오늘 날 어느 곳일까?

패수는 『세종실록』 「지리지」, 『성호사설』, 『강역고』 등에 압록강으로³⁴⁾, 『동국지리지』에 청천강으로, 『동사강목』에는 대동강으로, 『동국통감제강』에는 서요하로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에도 패수에 관한 이설(異說)이 혼재되어 있었다.

근대사학 이후의 논의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패수를 요하(遼河) 동쪽 지류인 혼하(渾河)로 보는 설³⁵⁾이 지지를 받고 있는 듯 하다. 최근 10 수년에 걸쳐 발표된 고조선 관련 연구물을 보면 문헌에 기록된 패수의 흐름, 고조선과 진·한의 경쟁 양상 등을 근거로 패수를 요하 부근에서 찾고 있다. 특히 『전한기(前漢紀)』 효무황제기에 “요수를 새(塞)로 삼았다.”는 기록이 발견되고 비파형동검과 세형동검의 중간형검의 요동지역 출토가 늘어나며, 고조선의 교역에 활용된 명도전 등에 관한 논문 등이 발표되면서 패수-혼하설은 문헌사학 및 고고학계에서 모두 지지를 받고 있다.³⁶⁾ 물론 패수를 여전히 청천강³⁷⁾으로 보거나 하북성의 난하(灤河)³⁸⁾로 보아야 한다는 논쟁도 지속되고 있다.

『靑丘學叢』13.

- 31) 이종욱, 1997, 「고조선사의 전개와 영역」 『백산학보』 47, 241-242쪽.
 송호정, 2003, 「요동~서북한 지역에서 세형동검문화의 발생과 고조선의 국가형성 연구」 『한국상고사학보』 40.
- 32) 노태돈, 1990, 「고조선 중심지의 변천에 대한 연구」 『한국사론』 23, 서울대국사학과, 49-53쪽.
 노태돈은 만변한을 요동반도 개평 일대의 어니하와 청하를 잇는 선으로 비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연의 첫 공격에 의한 경계일 뿐이고 이후 연이 계속해서 동쪽으로 세력을 확장하여 결국 고조선과 연이 청천강 선을 경계로 하였다고 보고 있다.
- 33) 앞의 각주 1)의 표에 제시된 최근의 박사학위 논문 참조.
- 34) 『세종실록』 「지리지」 평안도. 이략과 정약용은 각각 『성호사설』과 『강역고』.
- 35) 서영수, 1988, 고조선의 위치와 강역, 『한국사시민강좌』 2, 일조각; 1996, 「衛滿朝鮮의 形成過程과 國家的 性格」, 『韓國古代史研究』 9; 1999, 「고조선의 대외관계와 강역의 변동」, 『동양학』 29.
- 36) 박선미, 2009, 「고조선과 동북아의 고대 화폐」, 학연문화사.
 박준형, 2012, 「기원전 3-2세기 고조선의 중심지와 서계의 변화」 『사학연구』 108.
 김남중, 2014, 「위만조선의 성립과 발전과정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오현수, 2014, 「고조선의 형성과 변천과정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 37) 송호정, 2003, 「요동~서북한 지역에서 세형동검문화의 발생과 고조선의 국가형성 연구」 『한국상고사학보』 40.
- 38) 윤내현, 1986, 『한국고대사신론』, 일지사; 2004, 『고조선 연구』, 일지사 (1994년 초판).

5. 맺음말

고조선사 연구를 회고해 보면 영성(零星)한 문헌자료와 고고학 자료에의 쉽지 않은 접근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들을 이루어 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학계는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고조선을 둘러싼 많은 의문점에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그 만큼 고조선의 역사를 복원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는 의미일 것이다.

다행인 것은 문헌과 고고학 자료를 종합하여 고조선사를 복원하고자 하는 학계의 노력이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다는 점이다. 고조선을 둘러싼 쟁점을 주제로 하여 학제적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고조선사상(古朝鮮史象)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고조선을 둘러싼 최근의 식민사학 논란이다. 역사와 문학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움직임이 세계적인 추세이기는 하나³⁹⁾ 역사가 문학과 다른 점은 ‘사실’을 다룬다는 점이다. 멀리는 헤로도토스(Herodotus)와 투키디데스(Thucydides), 가깝게는 랑케(Leopold von Ranke)와 카(E. H. Carr)를 굳이 운운하지 않더라도, 역사학은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학문이며, 그 사실은 문자로 기록된 사료의 비판과 고고학 자료에의 정밀한 분석을 통해 획득된다. 사료에 대한 비판은 역사학이라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역사학자의 몫이며, 고고학 자료에의 분석은 고고학이라는 과학적인 훈련을 받은 고고학자의 몫이다.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사료에 대한 독해는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그 해석에서 오류가 발생하기 쉽고, 고고학 발굴은 도굴과 다름아닌 수준으로 전락하여 역사왜곡의 길을 스스로 열어주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역사학과 고고학이 정규 교육기관에서 훈련받은 이들의 전유물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기록이 영성한 고조선사상의 복원에는 그 어떠한 분야보다도 전문가의 정밀하고 치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이제야 겨우 고조선사 연구가 본 궤도에 올라섰다고 생각된다. 전문연구자가 확충되었고 -물론 여전이 부족하지만- 만주지역의 고고학 자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 해외 전문가들과의 교류도 잦아지고 있다. 고조선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도 한층 고조되어 고질적인 ‘연구비 부족’이라는 난항에서도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타서 기존에 제기된 여러 쟁점들을 주제로 적극적으로 전문적인 토론이 국내외에서 이루어진다면 고조선을 둘러싼 궤궤 묵은 질문의 명쾌한 해답을 찾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북한은 물론, 중국, 일본, 제3의 영미권 학계가 참여하는 것은 고조선사의 세계화를 위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한 가지를 사족으로 달고 강연을 마감하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조선을 전공하는 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를 거듭해 오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문헌기록의 부족과 모호함으로 인해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만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사료에 대한 해석이 학자마다 다를 수 있는 것은 사료가 쓰여진 당시의 역사지리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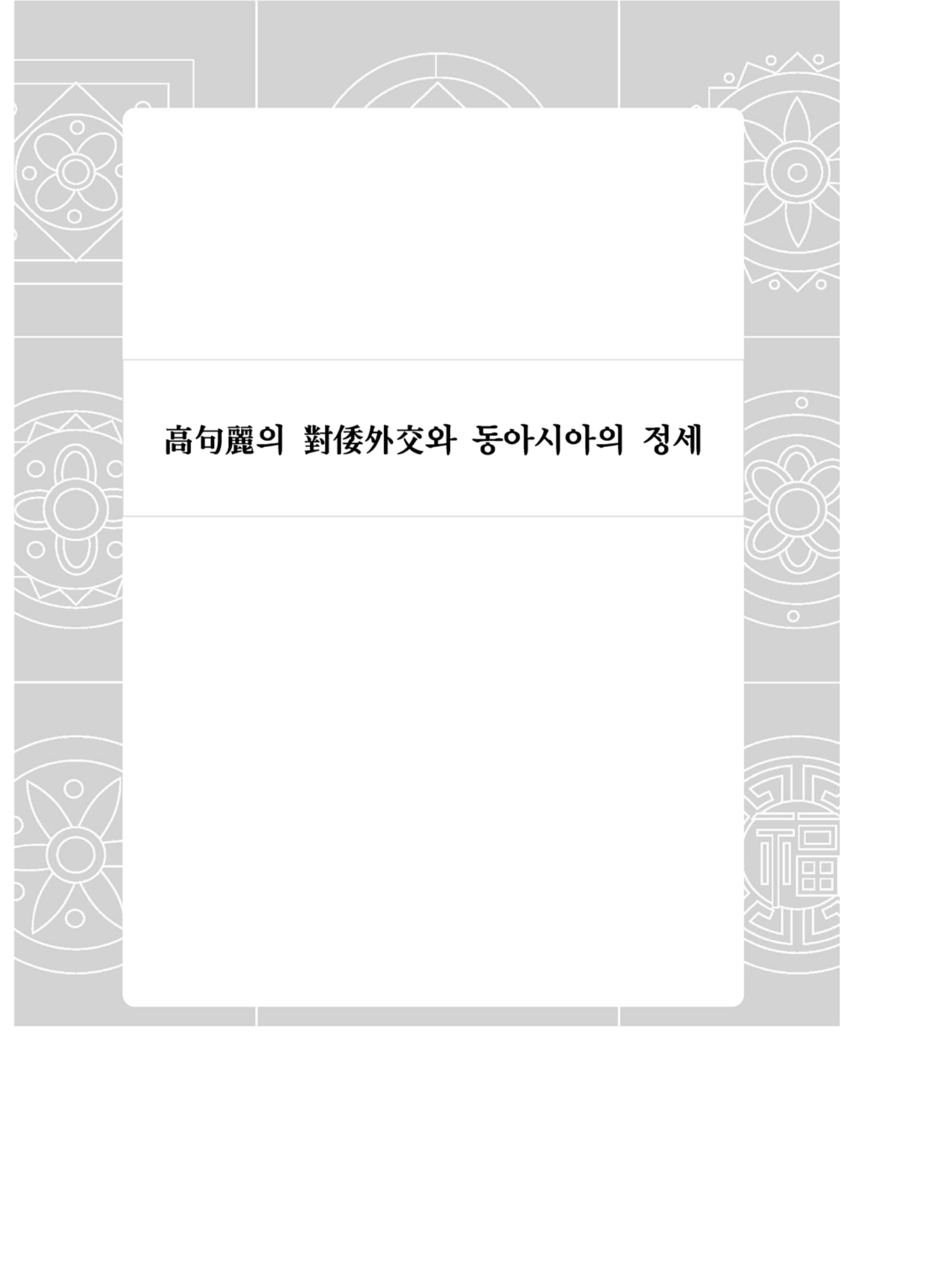
39) Hayden White의 메타역사(Metahistory)에 관한 최근의 논의 참조.

배경이 현재와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역사학자들은 소위 사료 비판이라는 것을 통해 어느 것이 사실에 가까운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고고학적으로는 비파형동검과 세형동검이 출토되는 소위 동검문화를 고조선과 연결시켜 보고 있으나 이에 대한 견해도 분분하다. 고고학상에 나타나는 時·空間的 범위와 문헌에 나타나는 時·空間的 범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고고학적인 측면에서의 문화적인 경계가 반드시 당시의 정치·군사, 또는 경제나 지리적인 경계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고고학 자료를 해석할 때 무엇보다도 주의할 점은 고인돌 분포의 예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같은 물질문화라도 다른 정치체 또는 다른 국가에서 사용할 수도 있으며, 같은 정치체 혹은 국가라고 하더라도 다른 물질문화를 영위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⁴⁰⁾ 이것은 여러 정치체(혹은 나라)가 문화적인 공통 요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이렇다. 고조선이 활동하였을 당시 예맥, 예, 맥, 韓, 진국, 진번, 임둔 등 여러 종족 혹은 정치체가 사료에 등장한다. 이 가운데 고조선의 고고학적 문화는 무엇이고 이들과 나머지 정치체들의 고고학적 문화와의 차이는 무엇인가? 예맥이나 진국, 진번 등을 대표할 만한 고고학 자료는 무엇인가? 사회 일각에서는 비파형동검이 분포하는 지역 전체를 고조선으로 보기도 하고 혹은 지식모 분포범위를 고조선의 강역으로 등치시키는 경우가 왕왕 있다. 위대한 고조선을 만들기 위하여 한국사의 첫 장을 구성하는 또 다른 정치체들의 역사를 희생시키는 것과 다름 아니다. 고조선 사람은 연, 진, 한, 흉노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정치체들과의 상호교류를 전개하였다. 문헌자료와 고고학 자료는 모두 주민의 들락이 잦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모습으로 생활하였을 이들을 단편일률적인 고고학 자료로 묶어보려는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 볼 때이다.

40) 孫晉泰, 1983, 「朝鮮 돌맹에 관한 調査 研究」『民俗學論攷』, 大光文化社.

The background features a grey border with white line-art patterns. On the left and right sides, there are vertical bands of repeating circular motifs, including stylized flowers and geometric designs. At the top, there are larger, more complex patterns, including a central arch-like structure and a circular mandala-like design on the right. The central area is a large white rectangle containing the title text.

高句麗의 對倭外交와 동아시아의 정세

高句麗의 對倭外交와 동아시아의 정세

이성제 (동북아역사재단)

1. 머리말

<고구려 사신도>

이 그림은 日本 法隆寺 金堂의 臺座 위에 그려진 것으로, 머리 위의 깃털 장식 즉 鳥羽冠을 쓴 고구려인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 이 고구려인의 모습은 聖德太子의 시대(574-622) 무렵에 그려진 것이라 한다. 『日本書紀』에는 이 시기에 고구려 사절과 승려가 자주 왜국을 찾았다고 전하고 있는데, 이 그림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실물 자료로 주목된다. 양국이 적대하던 관계에서 벗어나 긴밀하게 교류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6세기 후반에 들어서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계는 급변하였다. 고구려가 北齊와 新羅의 위협에 몰려, 고립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국제정세와 관련하여 고구려가 대외외교에 나선 사실이 주목된다(570, 573, 574년). 고구려가 백제를 사이에 두고 왜와 적대해왔던 관계에서 탈피하여 왜에 접근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구려의 대외외교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는 6세기 후반부터 급변하던 국제관계와 이에 대응해나간 고구려의 국가전략을 이해할 수 있다.

2. 고구려의 대외외교를 둘러싼 기존의 이해

1) 고구려가 대외외교에 나선 까닭은 한마디로 신라의 군사적 위협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6세기 중반 신라의 성장>

이 그림은 신라 眞興王의 영토 확장을 묘사한 것인데, 551년 신라는 百濟와 연합하여 漢江 유역을 획득하였고, 554년 官山城 전투에서 백제를 크게 격파하고 韓半島 中部지역을 독차지하였다. 나아가 556년부터 東海岸 北部지역(현재의 함경남도)으로 진출, 568년 黃草嶺碑와 磨雲嶺碑를 세웠다. 그림은 한반도 귀퉁이의 작은 나라였던 신라가 급성장하였고, 한반도 거의 전역에서 고구려를 위협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로부터 2년 뒤인 570년 高句麗 平原王이 보낸 使者가 바다를 건너 倭國의 서해안에 상륙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고구려는 오랜 적대관계를 뒤로 하고 왜국과의 외교관계를 열고자 하였다. 이 점에서 신라의 위협과 고구려의 대왜외교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고 이해하였던 것이다.

여기에 더해 중국 南北朝의 對韓半島 정책이 변하였다는 것도 고구려가 대왜외교에 나서게 된 배경으로 지목된다.

- 564년 신라가 北齊에 朝貢하자, 565년 북제 武成帝는 신라 진흥왕을 ‘使持節 東夷校尉 樂浪郡公 新羅王’에 冊封하였다.
- 565년 남조의 陳에서 사신 劉思·승려 明觀을 보내면서 經典도 1,700여권을 보내왔다.

신라가 처음으로 北齊에 사절을 보내 조공하였고, 북제의 책봉이 이어졌다. 또한 남중국의 陳도 신라에 사절을 보내왔다. 남북조 모두 신라를 중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로써 고구려는 한반도와 중국 두 방면에서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신라의 攻勢에 대처하면서 북제에도 대비해야만 했던 것이다. 이러한 고립의 양상에서 고구려는 대왜외교를 전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3. 560년대 후반의 국제정세와 고구려의 대왜외교

이제까지의 이해에 따른다면 왜는 당시 고구려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던 국제정세를 일거에 반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세력이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당시 동북아시아세계에서 왜가 그렇게 강력한 세력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이런 의문을 가지고 그림을 보도록 하자.

<전황의 반전>

<황초령비>와 <마운령비>는 현재의 咸鏡南道 咸興郡 下岐川面 黃草嶺과 咸鏡南道 利原郡 東面 磨雲嶺에 건립되었다. 이는 신라가 고구려 영역 깊숙한 곳까지 차지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들 비의 의미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사료가 전하는 사실도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북한산주를 폐하고 남천주를 두었다. 또한 비열홀주를 폐하고 달홀주를 두었다 (『三國史記』 卷4 眞興王 29年 10月條)

진흥왕 29년 10월은 비문 기록에 따르면 진흥왕이 황초령과 마운령을 순수하고 비를 세웠던 바로 그 달이다. 이때 신라는 이 지역을 관할하던 比列忽州를 폐하고 達忽州를 설치하였다. 비열홀주의 치소가 오늘날의 함경남도 安邊이며, 달홀주 치소는 江原道 高城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조치는 ‘퇴각’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즉 진흥왕이 이 두 비를 세운 직후, 신라

군은 함남 지역에서 강원도 북부지역으로 퇴각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산주를 폐기하고 남천주(경기도 利川)를 설치했다는 것은 서북의 국경 거점도 포기되고 남쪽으로 전선을 물렸다는 것을 알려준다. 10월의 시기에 전 전선에서 신라군은 후퇴하였던 것이다. 달리말해 고구려가 신라군을 물리치고 영토를 회복하였고, 그 추세가 전면적이었던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2) 북제의 진흥왕 책봉과 이후의 양국관계

또 하나의 위협이 되었다는 중국 방면의 위협은 어떻게 되었을까 보도록 하자.

신라가 사절을 보내 공물을 바치자, 북제는 신라왕을 책봉하였다. 565년의 일이었다. 이로써 양국은 고구려를 상대로 한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였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후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갔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북제의 후원을 필요로 하였을 신라조차 단 한차례 사절을 보내는데 그쳤다.

〈표 1〉 高句麗新羅와 南北朝 간의 交涉

연도	고구려의 사절 파견	신라의 사절 파견	비고
564년	→北齊(平原王 6)	→北齊(眞興王 25)	
565년	→北齊(평원왕 7)		①北齊→新羅, 使持節東夷校尉樂浪郡公新羅王册封 ②陳→新羅, 사신 劉思승려 明觀과 經典 1700여권 보내음
566년	→陳(평원왕 8, 12월)	→陳(진흥왕 27)	
567년		→陳(진흥왕 28, 3월)	
568년		→陳(진흥왕 29, 6월)	
570년	→陳(평원왕 12, 11월)	→陳(진흥왕 31, 6월)	4월(高句麗→倭)
571년	→陳(2월)	→陳(6월)	3월(倭→新羅) 8월(新羅→倭)
572년		→北齊	
573년	→北齊		5월(高句麗→倭)
574년	→陳(정월)		5월(高句麗→倭) 11월(新羅→倭)

(→는 사절 파견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①의 경우에는 북제가 책봉사를 보낸 것이라기보다는 귀국하는 신라 사자에게 책봉조서와 물품을 들려 보냈을 것이다)

한편 북제는 신라 대신 백제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나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567년 백제가 북제에 조공하자, 북제의 책봉이 뒤따랐던 것이다. 570년과 571년의 일이었다. 백제가 북제에 사절을 보내 조공하였고(567년), 이에 대해 북제는 571년 백제왕을 “使持節 侍中 車騎大將軍

帶方郡公”에 책봉하였다.

이것은 백제로 보아서 北朝와 通交한 최초의 예였고, 이를 계기로 양국 간의 문화적 교류가 활발했을 가능성이 중국 山東省 靑州 龍興寺址 출토의 半跏像 등의 물질자료를 통해 살펴진다. 570년을 전후한 시기 북제의 관심은 백제로 옮겨갔고, 양국의 교류도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북제의 半跏像과 백제 瑞山磨崖三尊佛의 반가상>

좌측의 사진은 중국 靑州의 龍興寺址에서 나온 북제시대의 반가상이며, 오른쪽은 瑞山 마애삼존불의 반가상이다. 한눈에도 두 반가상의 유사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북제와 백제의 冊封-朝貢관계가 성립되었다는 사실에 더하여 양국 간의 활발한 교류를 추정케 하는 실물자료인 것이다. 북제와 백제가 黃海를 통해 교류하였다는 사실이 중국 山東半島와 西海岸의 서산에 남아 있는 반가상으로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결국 신라가 거둔 군사적 성공이란 제한적이었으며, 대중국 외교의 성과라는 것 역시 일시적이었음을 알려준다. 이로부터 고구려가 직면했다는 대외적 위기란 이미 극복되었으며, 더 이상 현안이 될 수는 없는 것이었다. 신라에 모아졌던 북제의 관심이 순식간에 사라진 연유를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고구려가 왜에 접근한 배경과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재검토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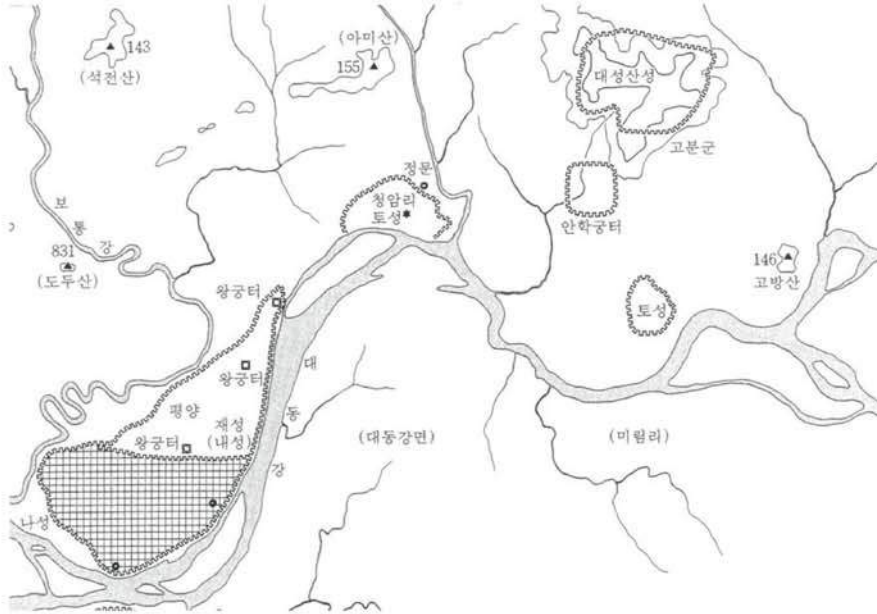
4. 대외외교의 추진 배경과 그 의미

1) 심각한 위기를 경험, 새로운 국가전략을 마련

그런데 위기는 극복되었지만,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로 그치지 않고, 신라라는 적대세력이 고구려의 西方에 있는 중국세력과 연계를 시도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었다. 신라의 군사적 위협도 일단 잠재웠지만, 또 다시 도전해 올 것이 분명하였다. 따라서 고구려가 대책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고구려의 대책, 즉 대외전략은 무엇이었을까. 이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長安城 축조라고 생각한다. 고구려 後期의 都城 장안성은 장대한 石壁으로 평양 시가지를 에워싼 총길이 23km의 平山城이다. 고구려 中期의 도성은 平地의 城과 山城(청암리 토성+대성산성)의 조합이었다. 그러던 도성의 구조는 장안성에 와서 內城-外城-北城으로 변모하였다. 장안성은 內城부터 쌓기 시작하여 外城을 거쳐 593년 北城을 쌓음으로써 완성되었다. 장안성 축조에 고구려는 장장 42년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였던 것이다. 물론 장안성의 축조가 결정된 것은 552년이라는 점에서 성의 축조가 고구려가 직면하고 있던 대외적 위기와 관련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2) 장안성 축조의 의미



그렇지만 고구려가 본격적으로 성벽을 축조하기 시작한 것은 위기의 국면을 맞은 지 한참 뒤인 566년이었다. 이로부터 내성의 성벽을 쌓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또한 불과 2년 뒤인 568년에 이르면 對新羅戰線의 전황이 반전되었음에도 고구려는 성벽 축조를 중단하지 않았다. 따라서 장안성 축조의 의미를 고구려가 한반도 중부지역을 상실했던 원인에서 찾으려 한 이해에는 무리가 있다.

장안성의 축조는 국방상의 위급상황에 직면하여 수동적으로 마련한 대책이라기보다, 고구려가 위기를 계기로 좀 더 기능적이고 체계적인 방어체제를 구축해 나갔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내성부터 차근차근 계획을 나누어 쌓았던 것으로 보아 장기적인 복안 아래 축조 계획을 세웠음을 알 수 있다.

<계획(552년) - 내성의 착공(566년) - 외성의 축조 완료(589) - 북성 완공(593년)>

42년이라는 오랜 세월동안 구간별로 차근차근 조성했다는 점에서 장안성 축조가 지향하는 바는 현재가 아닌 미래였다. 즉 고구려는 얼마 전 경험했던 위기를 되새겨 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차원에서 장안성을 쌓아나갔던 것이다.

체계적 방어체제의 구축이 국가전략의 목표였다고 한다면, 인접 국가들과의 연계도 필요할 것은 당연하였다. 군사 부문의 강화 못지않게 전쟁을 방지하고 전쟁 때 지원을 얻을 수 있는 대외관계의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고구려의 대외외교는 장차의 위기에 대비한 대외전략의 일환이었다. 고구려는 대외외교와 함

계 남중국의 진에도 사절을 파견하였다(570, 571, 574년). 소원했던 진과의 관계는 적대적이었던 왜와의 관계에 비견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우호관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고구려가 다가올 국제정세의 변동에 대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다. 또한 대외외교가 고구려의 대외전략의 전부인양 이해해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대진외교도 함께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대외관계의 다원화가 고구려의 의도였던 것이다.

대외외교가 장차의 위기에 대비한 대외전략의 일환이었다는 사실은 그 성과로서도 입증할 수 있다. 고구려가 왜에 보낸 첫 번째 사절(570년)은 572년이 되어서야 귀국하였다. 도착자인 가하(현재의 카나자와)의 호족이 왜왕을 詐稱하였고, 고구려 사절은 그를 왜왕으로 오인하여 國書를 전달하였다. 이 사실은 고구려가 당시 왜국의 사정에 무지하였다는 점을 알려준다. 또한 두 번째로 왜에 간 사절은 입국조차 허락받지 못하였다. 왜는 고구려와의 관계 개선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이다.

- “고구려 승려 慧慈가 귀화하였다. 즉시 황태자(聖德太子)의 스승으로 삼았다. 이 해에 백제의 승려 慧聰이 왔다. 이 두 승려는 불교를 널리 퍼뜨려 나란히 三寶의 동량이 되었다.”
(『日本書紀』 卷22 推古天皇 3年 5月 戊午朔丁卯條)

그러던 양국 관계가 변화하였다는 것은 바로 고구려 승려 慧慈가 왜의 聖德太子의 배후에서 활약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말하여 준다. 고구려인이 왜국의 실권자 곁에서 정책을 입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고구려 사절이 東海를 건너 도착했던 가하가 양국 간의 공식적인 교섭창구가 되었다는 사실에서도 그러하다.

이러한 왜국의 입장 변화와 관련하여 제 2차 사절의 귀국 길에 동행하여(573) 고구려를 방문하고 돌아간 왜국 送使가 눈길을 끈다. 그가 견문했던 고구려의 실정과 귀환해서 復命했을 견문의 내용은 왜국이 고구려를 재평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창 축조되고 있었던 장안성은 그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다고 보인다.

장안성 안의 넓은 시가지에 里坊制라는 정연한 도시 구획이 마련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도시를 왜국이 조성하게 된 것은 한참 뒤인 694년으로 藤原京이 그것이었다. 飛鳥의 좁은 지역에 왕궁을 이리저리 옮겨가며 운영하고 있던 당시 왜국의 입장에서 볼 때, 궁성을 북쪽에 배치하고 그 남쪽으로 중흥하는 도로를 배치하고 여기에 연하여 주민의 거주구역을 구획한 장안성은 전혀 새로운 것이었다. 더욱이 장안성의 리방제와 도성 구조는 北魏 洛陽城에서 유래한 새로운 도성 양식으로 삼국 중에서도 고구려만이 채용하고 있던 것이었다. 이처럼 고구려가 고도의 문화수준을 갖추고 있음을 본 왜국 송사의 견문이 왜국 조정에 전해지지 않았을리 없는 것이다.

5. 맺음말

6세기 후반 고구려의 국가전략은 장차의 위기에 대비하여 대외관계를 다원화한다는 것과 장안성 축조와 같은 방어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고구려의 국가전략에서 볼 수 있듯, 이 시기 삼국의 국가전략은 중국과 왜까지 아우른 국제관계와 연동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한국 고대사가 각국의 독자적 발전사를 넘어서서 국제관계의 변화에 조응한 국가전략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고구려의 사절 파견과 왜국의 대응 관련 기사

제1차 사절

- 1) “幸泊瀨柴籬宮. 越人江淳臣裙代詣京奏曰 高麗使人 辛苦風浪 迷失浦津. 任水漂流 忽到着岸. 郡司隱匿. 故臣顯奏. 詔曰 朕承帝業 若干年 高麗迷路 始到越岸. 雖苦漂溺 尙全性命. 豈非微猷廣被 至德巍巍 仁化傍通 洪恩蕩蕩者哉. 有司宜於山城國相樂郡起館 淨治厚相資養. 是月 乘輿至自泊瀨柴籬宮. 遣東漢氏直糠兒·葛城直難波 迎召高麗使人. 五月 遣膳臣傾子於越 饗高麗使. 大使審知膳臣是皇華使. 乃謂道君曰 汝非天皇. 果如我疑. 汝既伏拜膳臣. 倍復足知百姓. 而前詐余 取調入己. 宜速還之. 莫煩飾語. 膳臣聞之 使人探索其調 具爲與之 還京復命. 秋七月壬子朔 高麗使到于近江. 是月 遣許勢臣猿與吉士赤鳩 發自難波津 控引船於狹狹波山 而裝飾船 乃往迎於近江北山. 遂引入山背高城館 則遣東漢坂上直子麻呂·錦部首大石 以爲守護. 更饗高麗使者於相樂館.” (『日本書紀』 卷19 欽明天皇 31年 夏四月甲申朔乙未條)
- 2) “遣坂田耳子郎君 使於新羅 問任那滅由. 是月 高麗獻物并表 未得呈奏. 經歷數旬 占待良日.” (『日本書紀』 卷19 欽明天皇 32年 春3月戊申朔壬子條)
- 3) “天皇問皇子與大臣曰 高麗使人 今何在. 大臣奉對曰 在於相樂館. 天皇聞之 傷惻極甚 愀然而歎曰 悲哉 此使人等 名既奏聞於先考天皇矣. 乃遣群臣相樂館 檢錄所獻調物 令送京師. 丙辰 天皇執高麗表疏 授於大臣. 召聚諸史 令讀解之. 是時諸史於三日內 皆不能讀. 爰有船史祖王辰爾 能奉讀釋. 由是天皇與大臣俱爲讚美曰 勸乎辰爾. 懿哉辰爾. 汝若不愛於學 誰能讀解. 宜從今始 近侍殿中. 既而 詔東西諸史曰 汝等所習之業 何故不就. 汝等雖衆 不及辰爾. 又高麗上表疏 書于烏羽. 字隨羽黑 既無識者. 辰爾乃蒸羽於飯氣 以帛印羽 悉寫其字. 朝廷悉異之.” (『日本書紀』 卷20 敏達天皇 元年 5月壬寅朔條)
- 4) “高麗大使謂副使等曰 磯城嶋天皇時 汝等違吾所議 被欺於他 妄分國調 輒與微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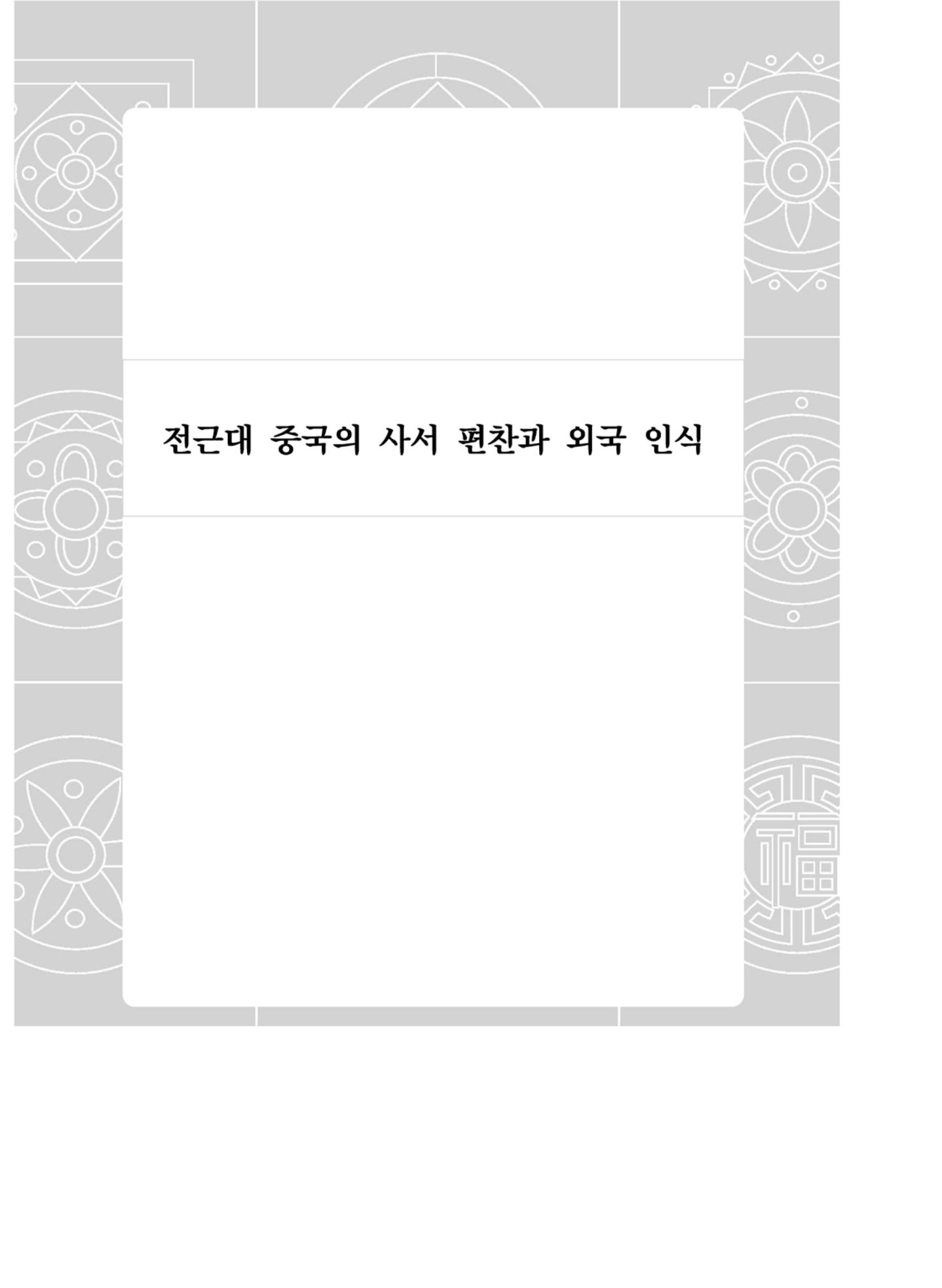
豈非汝等過歟. 其若我國王聞 必誅汝等. 副使等自相謂之曰 若吾等至國時 大使顯導吾過 是不祥事也. 思欲偷殺而斷其口. … 明旦 領客東漢坂上直子麻呂等 推問其由. 副使等乃作矯詐曰 天皇賜妻於大使. 大使違勅不受. 無禮茲甚. 是以臣等爲天皇殺焉. 有司以禮收葬. 秋七月 高麗使人罷歸. 是歲也 太歲壬辰.”(『日本書紀』卷20 敏達天皇 元年 6月條)

제2차 사절

“高麗使人泊于越海之岸. 破船溺死者衆. 朝廷猜頻迷路 不饗放還. 仍勅吉備海部直難波 送高麗使. 秋七月乙丑朔 於越海岸 難波與高麗使等相議 以送使難波船人大嶋首磐日·狹丘首間狹 令乘高麗使船 以高麗二人 令乘送使船. 如此互乘 以備奸志. 俱時發船 至數里許. 送使難波乃恐畏波浪 執高麗二人 擲入於海. 八月甲午朔 丁未 送使難波還來復命曰 海裏鯨魚大有 遮嚙船與楫櫂. 難波等恐魚吞船 不得入海. 天皇聞之 識其謾語 駭使於官 不放還國.”(『日本書紀』卷20 敏達天皇 2年 夏五月丙寅朔戊辰條)

제3차 사절

“高麗使人泊于越海之岸. 秋七月己未朔戊寅 高麗使人入京奏曰 臣等去年相逐送使 罷歸於國. 臣等先至臣蕃. 臣蕃即准使人之禮 禮饗大嶋首磐日等. 高麗國王別以厚禮禮之. 既而送使之船至今未到. 故更謹遣使人并磐日等 請問臣使不來之意. 天皇聞 即數難波罪曰 欺誑朝廷 一也. 溺殺隣使 二也. 以茲大罪 不合放還 以斷其罪.”(『日本書紀』卷20 敏達天皇 3年 夏五月庚申朔戊寅條)

The background features a grey field with white line-art patterns. On the left and right sides, there are vertical bands of repeating circular motifs, including stylized flowers and mandala-like designs. At the top center, there is a semi-circular arch-like pattern. A large white rectangular box is centered on the page, containing the title text.

전근대 중국의 사서 편찬과 외국 인식

전근대 중국의 사서 편찬과 외국 인식

김정희 (동북아역사재단)

1. 중국의 기록 문화

1) 한자

- 가공할 만한 한자의 수 : 『강희자전(康熙字典)』 42,174자, 1994년 中华书局 『中华字海』 85,568자. 현재 한자 수는 대략 10만 자 정도로 추정되며, 현재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新华字典』에 수록된 한자는 11200자 정도.
- 중국 교육부 제정 中小学 《语文课程标准》 규정에 의하면, 초등학교 6년 동안 3000자, 중·고등학교까지는 3500자를 습득해야 한다. 일상의 문자생활을 위해서는 3000~3500자 정도의 한자 습득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 한자 습득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이로 인해 최근까지도 다수의 민중이 문맹의 상태였다. 따라서 ‘문자개혁’ 운동이 청말, 민국시대부터 많은 학자들에 의해 시도되었으며, 그것은 표준어 제정, 한자를 표기하는 표음문자의 작성, 한자의 간략화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이것이 국가사업으로 강력하게 추진되어, 각각 보통화(普通話), 병음자모(拼音字母), 간체자(簡體字)라는 명칭으로 제정되었다. 특히 간체자 제정은 한자의 복잡한 획수를 대폭 생략하여 민중으로부터 환영받았고 식자교육에 크게 기여하였다. (ex: 漢字→汉字)

2) 갑골문자(甲骨文字)와 역사 기술

- 갑골문은 은대 후기인 반경(盤庚)의 은허(殷墟) 시기부터 帝辛(紂)의 망국 시기까지 약 270여 년간(기원전 1300년~기원전 1028년)의 문자이다. 1899년 하남성 안양시 은허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으며, 귀갑(龜甲)과 수골(獸骨)에 새겨진 문자이다.
- 갑골문은 그 구조나 어법이 상당히 완비된 문자로, 오늘날 한자의 기본 형식(‘六書’)을 갖추고 있다. 갑골문은 원시문자가 아니며 중국 최초의 문자도 아니며, 그 이전에 적어도 500년 정도의 발전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평가한다. 강서성 淸江 吳城 은대 중기 문화유적

에서 도기나 돌로 된 주형에 새겨진 70개 이상의 문자가 발견되었고, 그 대부분이 은대 갑골문과 일맥상통한다.

- 출토된 점복용 갑골 15만여 편 가운데 10여만 편에 문자가 새겨져 있는데, 상이한 문자가 4,500여 자이며, 이중 2,800여 자(자료에 따라 2,000자, 2,500자)가 해독되었다. 갑골문의 내용은 정치, 군사, 문화, 사회습속, 천문, 역법, 의약 등 은대사회의 여러 방면에 걸쳐 있어, 사실상 은 왕실의 역사 기록이다.
- 은허 출토의 갑골문은 복사(卜辭)로, 은대 사관의 기록이다. 은왕은 상제나 자신의 조상들에게 항상 제사를 지냈는데, 사람과 신의 의지를 소통시키는 방법이 점복이었으며, 갑골은 이러한 점복의 도구였다. 먼저 갑골 위에 구멍을 뚫고, 상제에게 복문(卜問)하고자 하는 사정을 낱낱이 나열한 다음, 뚫어놓은 구멍에 불을 쪼이면 갑골의 다른 면에 ‘복(卜)’자 모양의 균열(‘卜兆’)이 나타난다. 점복 담당자는 균열의 모양을 근거로 해서 사정(사건)의 길흉을 판단하고, 이것을 상제의 회답으로 여겼다.
- 전형적인 갑골 복사는 아래와 같은 네 부분으로 구성된 일정한 격식을 갖추었다. 가장 긴 복사는 100자 이상에 달한다.
 - 첫째 전사(前辭) : 점을 친 날짜(卜期) 및 점치는 사람(真人)의 이름
 - 둘째 명사(命辭) : 복문(卜問)하고자 하는 사건
 - 셋째 점사(占辭) : 복조(卜兆)로 정해지는 길흉
 - 넷째 험사(驗辭) : 점친 후의 효험

3) 사고전서(四庫全書) 편찬과 사부 총서(史部 總序)

- 청 정부는 건륭 37년(1772)부터 10년에 걸쳐 사고전서를 편찬하였다. 총찬(總纂) 기윤(紀昀) 이하 360여명의 관원, 3,826명의 필사 인원을 동원하여 현존 최대의 총서를 편찬한 것인데, 경사자집(經史子集) 4부(部)로 나누고, 총서명을 사고전서라 명명하였다.
- 수록서[著錄書]가 3,460종(3,503종), 79,339권에 달하며, 이를 36,300책으로 제본하였다(6.49기가바이트). 수록서 외에 존목서(存目書)가 6,793부, 95,551권이었고, 파괴서적이 10만부(전체 파괴 2,453종, 부분 파괴 402종, 석각 24종)에 달하였다. 이는 사고전서의 편찬 의도 및 그 공과를 되묻게 한다.
- 사고전서는 전체 체계를 부(部), 류(類), 자목(子目)으로 분류하고, 저록서와 존목서의提要(提要), 4부의 서두에 총서(總序), 류(類)의 서두에 소서(小序), 자목(子目) 뒤에 안어(案語)를 각각 두었다.
- 총서 편찬과 동시에 저록서와 존목서에 대해 내용 제요를 집필하여 『사고전서총목』(『사고전서총목제요』) 200권을 편찬하고 단독 간행하였다. 제요에서는 각 부 서적의 연원, 판본, 저자, 주요내용, 우열득실을 소개하였다.

- 사부(史部)의 경우 15류로 분류하고, 사부 총서에서 역사(편찬)의 원칙으로 “찬술은 간략하게, 고증은 상세하게(史之爲道, 撰述欲其簡, 考證則欲其詳)”를 제시하고, 그 최적의 예시로 “『춘추』보다 간략한 것이 없고, 『좌전』보다 상세한 것이 없다”라고 하였다.

- 사부 15류

今總括羣書, 分十五類. 首曰正史, 大綱也. 次曰編年, 紀事本末, 別史, 雜史, 詔令奏議, 傳記, 史鈔, 載記, 皆參考紀傳者也. 時令, 地理, 職官, 政書, 目錄, 皆參考諸志者也. 史評, 參考論贊者也.

- (1) 정사 : “대강이다.” 국가권력에 의해 공인된 정통의 사서로, 『사기』를 비롯한 24사가 이에 해당한다. 기전체(紀傳體) 형식의 사서이다.
- (2) 편년, 기사본말, 별사, 잡사, 조령주의, 전기, 사초, 재기 : “모두 기전을 참고한 것들이다.”
- (3) 시령, 지리, 직관, 정서, 목록 : “모두 여러 지를 참고한 것들이다.”
- (4) 사평 : “논찬을 참고한 것이다.”

2. 중국의 사서 편찬

1) 『춘추』와 『춘추좌전』

- 『춘추』는 공자(기원전 551~479년)가 노(魯) 은공(隱公) 원년(기원전 722년)부터 애공(哀公) 14년(기원전 481)까지 242년간의 역사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노나라 역사를 중심으로 하면서 주 왕실과 기타 제후국을 편년체 형식으로 기록하였다.
- 주요 내용은 춘추시기 주요 인물의 활동이나 정치사건(전쟁 40%, 회맹 20%), 일식과 같은 자연현상(10%), 제사와 축성, 수렵 등 잡다한 내용(10%) 들이며, 사회경제, 문화 부분에 대한 기록이 부족하다.
- 『춘추』의 서술 특색으로 이른바 춘추 ‘필법(筆法, 서법書法)’을 드는데, 이는 은휘(隱諱) 즉 ‘書하는가 不書하는가’와 포폄(褒貶) 즉 ‘어떻게 書하는가’의 문제이다. 결국 기사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중시하고 있는데, 다만 기록이 극히 간략해서 함의가 매우 불분명하다(微言大義).
- 242년의 역사, 1,800여 조 기사가 1만8천 자(현존 『춘추』는 16,500자)에 불과하여, 1조 평균 10자가 안 된다. 가장 짧은 기사는 한 자뿐이고(僖公 3년 하6월, “雨”), 두세 자인 경우도 있으며(襄公 9년 춘, “宋災”/宣公 5년 춘, “公如齊”), 일반적으로 10자를 넘지 않고, 가장 긴 기사도 45자에 불과하다. 그 중에는 표제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사건의 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이 따르지 않은 경우도 있다.
- 따라서 『춘추』만 보고서는 공자가 그 가운데 숨겨둔 ‘포폄’이 도무지 어떤 것인지 매우 알기 어렵다. 공자의 문하생들조차 공자가 “구술 전수(口授)”한 것을 직접 듣고도 그 함의에 대해서는 “물러나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退而異言)” 정도였다.
- 『춘추좌전』은 이러한 배경에서 저술되었다. 대체로 공자와 동시대 인물인 노나라의 좌구

명(左丘明)이 저술한 것으로, 그는 제자들이 이단을 일으켜 각각 그들의 뜻에 안주한 채 진실을 잃어버릴까 염려하여 『춘추좌전』을 저술했다고 한다(후한의 학자 환담(桓譚)은 “경만 있고 전이 없다면, 성인에 대해 문 닫고 10년을 생각해 보게 하더라도 알 수 없다”라고 하였다).

- 그러나 『좌전』은 좌구명 한 사람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사람에 의해 공동으로 집필되었다. 맨 처음 좌구명이 구술 전수하였고, 이후 죽백에 기록되었으며, 또한 뒷사람의 보충 정리를 거친 다음, 최종적으로 전국시대 말기에 필사되었던 것이다.
- 『좌전』은 『춘추』와 비교하면 체제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첫째 사료가 풍부해지고(전체 18만 자, 『춘추』의 10배에 달한다), 둘째 문체를 중시하고, 셋째 사실 기록(史)을 중시하면서 논평(論)을 창시하여 사론을 결합하였다. 한 단락의 역사 사실을 서술한 다음에 ‘군자왈(君子曰)’을 두어 사실에 대한 관점과 논평을 기술한 것이다. 사마천의 ‘태사공왈(太史公曰)’은 『좌전』의 이러한 형식을 발전시킨 것이다.
- 현대에는 『공양전』, 『곡량전』과 함께 『춘추삼전』으로 불렸다. 『공양전』과 『곡량전』의 취지는 『춘추』의 미언대의(微言大義)를 밝히는 것이며, 『좌전』은 역사사실의 서술을 중시하였다.

2) 『사기』와 『자치통감』

- 『사기(史記)』
- 『자치통감(資治通鑑)』은 북송의 사마광(司馬光)이 주편하고, 유반(劉攽), (유서(劉恕), 범조우(范祖禹)가 보조하였다. 주(周) 위열왕(威烈王) 23년(기원전 403년)부터 후주(後周) 세종(世宗) 현덕(顯德) 6년(959)까지 1362년간의 역사를 기술하였다. 『자치통감』은 엄밀한 편찬 순서를 거쳤는데, 먼저 총목(叢目)을 작성하고, 다음으로 장편(長編, 初卷) 즉 초고를 쓰고, 마지막으로 최종원고를 확정하였다. 『자치통감』의 특징으로는 사료 ‘고이(考異)’의 방법을 창시하여 사료비판을 거쳤고 이를 『통감고이(通鑑考異)』 30권으로 간행하였다는 것이다.

3. 중국의 정사 편찬과 정사 외국전

1) 『사기』와 기전체

- 사마천(司馬遷, 기원전 145~?)은 전한의 좌풍익 하양(左馮翊 夏陽, 지금의 섬서성 한성(韓城)) 사람이다. 사망 시기는 대체로 60세 전후로 보고 있다. 부친 사마담(司馬談)은 전한의 태사령(太史令)으로 문서, 역사기록, 천문관측 등의 업무를 관장하였다. 사마천은 부친을 따라 수도 장안에 이르러 무릉(茂陵)에 거주하였다. 제자백가의 논저 뿐만 아니라 천문, 율력, 지리에 정통했고, 의약과 점복에도 조예가 있었으며, 사부와 산문 등 문학에도 능했

다. 20세 이후 여행을 시작하였고, 이후 황제의 시종관인 낭중(郎中)에 임명되었다.¹⁾ 36세 때 부친 사마담이 병사하고, 3년 뒤 태사령의 지위를 계승하였다. 이후 이릉(李陵)의 화(禍)로 궁형에 처해졌지만 계속 역사서 저술에 힘썼다.

- 『사기』 집필은 15년 혹은 20년에 걸친 작업이었다. 38세 태사령이 되었을 때 자료 수집에 착수해서 53세에 그 기본을 완성한 것으로 보면 15년이 걸린 셈이고, 이전의 준비와 이후의 수정 증보 과정을 덧붙이면 20여 년이 소요된 셈이다. 원래 서명은 『태사공서』이지만, 위진 이후에 이르러서 『사기』라고 불렸다. 이후 『사기』라는 말은 역사 서적에 대한 범칭에서 사마천의 저술에 한하는 호칭으로 바뀌었고, 태사공도 사관인 태사령을 지낸 모든 사람에 대한 칭호에서 사마천만을 가리키는 칭호로 바뀌었다. 결국 ‘태사공’과 ‘사기’는 사마천의 전유물로 공인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 『사기』는 황제(皇帝)부터 전한 무제 태초(太初) 연간에 이르는 총 3,000년간의 역사를 기술하였으며, 본기(本紀) 12편, 서(書) 8편, 표(表) 10편, 세가(世家) 30편, 열전(列傳) 70편의 다섯 부문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형식을 기전체(紀傳體)라 하며, 『사기』 이후 역대 정사의 기본 형식으로 자리 잡았다.
- 본기와 세가
 - 본기의 ‘紀’는 ‘記’와 같고, ‘사실에 근거(本)하여 기록한다’라는 뜻에서 ‘본기’라는 말이 나왔다는 설이 있다. 또 ‘본’이란 그 본계(本系, 하늘의 명을 받은 천자의 위)를 엮어 연결하는 것이고 紀는 다스린다는 뜻으로서, 본계를 엮어 세계를 통치한다는 뜻으로 보기도 한다. 사마천이 생존하였던 한 무제 시대는 거대한 정치적 통일의 완성 단계였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직접 목도한 사마천은 역사를 통일에서 분열, 그리고 다시 통일로 전개되는 정치과정의 연속으로 보았다. 따라서 그에게 세계의 역사는 곧 정치의 역사를 의미하였으며, 이 세계를 움직이는 정치의 축은 제왕이었다. 그가 모든 권력의 중심인 제왕에 관한 연대기적인 서술을 ‘본기’라고 명명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²⁾
 - 세가란 ‘세세로 봉록을 갖는 집’ 즉 봉건 제후들에 관한 기록으로 보는 설이 있다. 그러나

1) 황제의 시종관인 낭중에 임명되어 사행 길에 오르거나 황제의 봉선, 순회에 수행하면서 서남쪽으로는 파, 촉 이남의 邛, 笮, 昆明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空桐(감숙 동남부), 북으로는 涿鹿(허북 북부)과 九原(내몽고 남부)에 이르고, 동으로는 황해에 미쳤다. 대체로 지금의 광둥, 복건, 장성 이북, 하서회랑 밖을 빼면 거의 전국 각지에 사마천의 발길이 닿았던 셈이다.

2) 그렇다면 본기란 ‘제왕의 역사’라고 간단하게 규정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 본기에는 「項羽本紀」나 「呂后本紀」처럼 이단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사기』에서 ‘본기’라 할 경우 반드시 제왕의 역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었던 사람을 정권담당자로 보았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고 실질적인 것을 더 중시했느냐 하면,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도 없다. 진의 시황제가 죽은 뒤 陳勝(陳涉)이나 吳廣이 왕이 되어 張楚라는 국호를 내걸고, 일시적이거나 실질적인 정권을 장악한 것처럼 보였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사기』에서는 진승의 기록을 ‘世家’에 포함시켜 여러 제후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 진승과 항우·여후의 차이는 중심자가 되어 거기에서 나오는 호령이 정치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실력자인가 아닌가가 될 것이다. 진승은 국호를 내걸었지만 그러한 중심자는 아니었다. 사마천이 보기에 ‘본기’에 기록될 자는 그 같은 조건에 맞는 자라야 했다. 말하자면 세계의 중심자라는 의식이 그것이다.

『사기』의 세가에는 「진섭세가」라든가 「공자세가」 같은 것이 있어, 반드시 세세대대를 내려온 제후들의 기록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사마천은 “28개의 별자리가 북신(北辰)을 둘러싸고 돌고, 30개의 바퀴살이 바퀴통 하나에 합쳐져, 운행이 끝이 없다. 보필고굉의 신하를 이에 짝 짓는다”(「太史公自序」)라고 하였다. 즉 모든 별들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고 수레바퀴의 바퀴살이 중심부로 모여 별과 바퀴의 운행이 끝이 없듯이, 군왕을 도와 그 수족이 되는 신하를 별자리나 바퀴살에 비유한 것이다.

- 이렇게 보면 본기와 세가의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본기는 북극성이나 바퀴통에, 세가는 28개의 별자리나 30개의 바퀴살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는 제왕을 북극성에, 제후왕을 천체의 각 분야를 점하고 있는 28개의 별자리에 각각 비유함으로써 세가가 다수의 정치적인 집단에 의해 공간적으로 나누어 맡는 정치질서임을 시사하였고, 동시에 제왕과 제후의 관계를 바퀴살과 바퀴통에 각각 비유함으로써 분권적 정치집단이 제왕을 구심점으로 통합될 때 비로소 세계는 움직인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다.

○ 표와 서

- 표는 세가가 그 성격상 사건의 공간적 병렬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설정되었다. 각 세가 안의 사건들의 선후 또는 상호 관련성을 이해하려면, 그것들을 다시 시간적으로 배열하지 않을 수 없는데, 표가 바로 그것이다. 사마천은 이것으로 중국사회의 단계적 변화, 예컨대 삼대(하은주), 춘추시대, 전국시대, 진한제제(秦韓之際)를 표현하는 데도 성공하였다.
- 사마천이 역사를 제왕과 제후의 권력 소장관계나 그들을 둘러싼 정치적 사건의 전개과정으로만 인식하였다면, 『사기』는 본기, 세가, 표만으로 끝났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서를 저술하여 역사를 좁은 의미의 정치사에서 문화 전반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정치사로 확대하였다. 그가 생각한 정치는 단순한 권력투쟁과 왕조의 흥망성쇠 과정만이 아니었고, 제왕이 세계를 지배하는 원리와 수단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그는 이것의 구체적인 표현인 문물제도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서를 저술하였다. 그렇지만 그가 이것으로 만족하였다면 『사기』는 일반적인 문화사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 열전의 성립

- 사마천은 넓은 의미의 정치를 창조하고 움직이는 주체의 문제를 크게 의식하였다. 그것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제왕도, 제왕의 권력을 공간적으로 나누어 맡는 제후왕도 아니며, 정치 경제 문화의 각 분야에서 활동하며 생을 영위하는 구체적인 개개의 인간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렇다면 역사가 개개의 인간에 의해 구체적으로 창조되고 움직인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은 무엇인가. 바로 열전이였다. 전체 130권으로 구성된 『사기』 중에서 열전이 70권을 차지한다는 점에서도 그가 이 부분을 얼마나 중시했는지 알 수 있으며, 사실 『사기』에서 가장 정체를 발하는 것도 이 부분이다.

- 열전은 흔히 개인의 전기를 병렬한 의미로 이해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전(傳을) 주석의 의미로, 열(列)을 ‘烈’과 ‘例’의 복합 의미로 해석한다면, 뛰어난 개인 또는 모범적인 개인의 행적을 통하여 본기, 세가, 표, 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석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열전’의 목적은 단순히 개인의 생애를 소개하려는 것보다 본기, 세가, 표에 전개되는 사건의 흐름과 서에 서술된 문화 전반의 변천을 그 주체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이었다.
- ‘태사공자서(太史公自序)’와 ‘태사공왈(太史公曰)’
 - 『사기』는 이처럼 크게 본기, 세가, 표, 서, 열전의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었지만, 성격상 이것들과 구분되는 두 부분이 있다. 하나는 열전 70편의 마지막편인 「태사공자서」이고, 또 하나는 각 편마다 삽입되어 있는 ‘태사공왈’로, 『사기』 구성상의 또 다른 특색이다.
 - 「태사공자서」는 사마천의 자서전이며 동시에 『사기』의 해제이기도 하다. 『사기』 이전 중국의 저술 중 서(序)가 들어있는 것은 『상서(尙書)』뿐이다. 더욱이 『사기』의 ‘자서(自序)’에는 『사기』 전체의 집필 동기, 구성, 각 편의 서술 이유뿐 아니라, 저자 자신의 가계와 학문적 배경 및 경력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서문의 성격과는 다르다. 이런 식의 ‘자서’는 실제 자기가 서술한 대상 하나하나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며, 이것은 과거사실의 추체험(追體驗) 또는 재연(再演)의 과정을 거친 역사가만이 가능한 것이다.
 - ‘태사공왈’에서 이러한 사마천의 역사인식 태도는 보다 뚜렷이 나타난다. 이것은 각 편마다 맨 처음이나 맨 마지막, 또는 서술 중간에 삽입된 것으로, 여기서 사마천은 직접 일인칭으로 등장하면서 해당 내용에 대한 자신의 비평을 덧붙이고 있다. 이 비평은 태사공 자신의 의견으로서 논찬이라고 불린다.³⁾
 - 물론 「태사공자서」에도 논찬이 있다. 이는 자기 자신을 열전의 한편으로 소개화한 꼴이다. 그러므로 자서전이기는 하나, 사마천의 의식으로서의 자신을 대상화하고 객관화하여 기록했다고 할 수 있다. 「태사공자서」에 붙은 논찬은 그저 “나는 황제(黃帝)로부터 태초(太初, 한 무제의 연호)에 이르기까지를 술력(述歷)하여 130편으로 끝맺는다”라고만 하고 있다. 이 간결한 논찬은 대작품을 완성한 감동을 아주 잘 드러냈다고 평가받고 있다.

2) 정사 24사(史)와 외국전

- 사마천이 『사기』를 저술한 이래 중국의 역대 왕조에서는 기전체 형식으로 이전 왕조에 대

3) 『사기』 이전의 저술 중 저자나 또는 편자의 견해가 간접적이거나 표현된 예로는 『좌전』 『국어(國語)』 『안자춘추(晏子春秋)』 『한비자(韓非子)』의 ‘군자왈(君子曰)’이라는 형식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이 ‘태사공왈’의 선구였다고 흔히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등장 횟수도 크게 적을 뿐 아니라, 내용 중 편자나 저자가 직접 등장하는 예가 없어 편저자 자신의 견해라기보다는 제삼자의 견해를 소개 인용한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도 특정 사건에 대한 간단한 포럼과 감상에 국한된 것이었다.

한 역사서를 편찬하였다. 이 가운데 국가권력으로부터 공인을 받은 사서를 특별히 ‘정사’로 분류하고, 모든 종류의 사서 가운데 첫째 또는 최고라는 권위를 부여하였다. 시대가 바뀌고 왕조가 교체되어 정사 편찬이 거듭되면서 그때마다 공인된 정사를 13사, 17사, 22사 등으로 불렀다. 청 건륭(乾隆) 연간에 이르러서는 『사기』부터 『명사』까지 ‘24사’가 공인되었다. 일반적으로 오늘날 이 24사를 중국 정사의 총칭으로 인정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그 후 중화민국 시기에 편찬된 『신원사(新元史)』를 포함하여 25사라 칭하기도 하고, 『청사고(淸史稿)』까지 포함하여 26사로 부르기도 한다.

- 『사기』를 비롯한 이들 정사에는 기전체의 형식에 따라 열전이라는 항목을 두었는데, 외국이나 다른 지역 및 종족에 대한 기록도 열전의 하나로 편제하였다. 우리는 그러한 열전들을 추려 ‘외국전’으로 정의하고 그 총칭으로 사용하였다. 각 정사에서 그 명칭은 종족 이름을 따서 붙이기도 하고, 지역 구분에 따라 붙이기도 하고, 화이(華夷) 관념에 입각한 ‘사이(四夷)’ 구분에 따라 명명하기도 하였다. 『송사(宋史)』에서 처음으로 ‘외국전’이라는 명칭으로 대외관계를 포괄하는 체제가 나타나 『명사』에 이르기까지 외국전의 일반적인 명칭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외국과 더불어 사이, 만이(蠻夷), 외이(外夷)라는 명칭이 쓰이기도 하였다. 주목할 바는 이들 ‘외국전’의 ‘외국’이 중국 역대 왕조의 정사에서 명백히 ‘중국’과 구별하고 타자로 인식해온 다른 지역, 종족, 국가라는 점이다.
- 중국 정사 24사 가운데 『진서(陳書)』와 『북제서(北齊書)』를 제외한 22개 정사에는 모두 외국전이 편제되어 있다. 외국전의 기사들은 기본적으로 한대부터 명대까지 중국의 왕조들이 각각의 방식으로 인지하고 관계를 맺어온 세계, 즉 다른 나라와 지역 및 종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따라서 외국전은 전근대 한중관계를 포함하여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더없이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⁴⁾

4) 문제는 외국전 자체의 방대한 분량, 원문 해독의 난해함 때문에 일반 시민은 물론 전문 연구자라도 외국전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외국전 전체에 대한 역주를 기획하고,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년간 31명의 전문 연구자가 참여하여 외국전 역주를 진행하였다. 역주 결과는 순차적으로 『사기 외국전 역주』부터 『명사 외국전 역주』까지 총 29권으로 출간되었다. 외국전 역주서의 완간과 더불어 또 다른 요구가 제기되었다. 중국 정사 외국전은 역주본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시공간적으로 대단히 광범위하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29권의 책으로 나뉘어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전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누구든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전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 내용과 의미를 종합적으로 설명해주는 지침서를 마련할 필요성이 컸다. 바로 이러한 필요에서 『중국 정사 외국전이 그리는 ‘세계’들』이 기획되고 집필되었다. 이 책은 『사기』부터 『명사』까지 중국 역대 왕조의 정사에서 ‘중국’과 구별하고 타자로 인식해온 다른 지역, 종족, 국가와 관련된 열전을 추려 ‘외국전’으로 정의하고, 이 외국전들이 기술하고 있는 ‘세계’의 모습을 드러내 그 전체상을 그려보고자 기획하였다. 여기에서 세계란 “지구상의 모든 나라 또는 인류사회 전체”라는 일반적인 의미로서가 아니라, 중국의 각 왕조가 시대에 따라 인지하면서 관계를 맺어온 지역, 종족, 국가 전체를 포괄하는 의미로서의 세계이다.

3) 중국 정사 외국전의 편제와 외국 인식

- 『중국 정사 외국전이 그리는 ‘세계’들』
 - 중국 정사 24사의 편제[표]
 - 외국전의 구성과 서술 대상[표]
 - 중국 정사의 외국 인식

